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정 소 우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드라마 대화 분석을 통한  
10대 요청 화행 유형 연구

2009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영어교육전공

정 유 선

드라마 대화 분석을 통한  
10대 요청 화행 유형 연구

정 소 우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8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영어교육전공

정 유 선

# 인 준 서

정유선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논문개요

기존의 중·고등학교 요청 화행 연구 분석 틀로서 대학생들의 발화를 분석대상으로 한 Gibbs(1981,1986)의 연구는 한계점이 있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 연구는 하이틴 드라마에 제시된 미국과 캐나다 청소년들의 요청 화행 유형 및 빈도를 조사하여 Gibbs의 연구와의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더해 이 논문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기존에 이루어진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에 나타난 요청 화행 유형 및 빈도 연구 결과를 재해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 아래 8개의 미국과 캐나다 하이틴 드라마에 나오는 427개의 요청 화행 유형과 그 빈도를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8개 하이틴 요청 화행의 연구결과, 직접 요청 유형의 사용(35%)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뒤로 직접 질문형(16%), 기술형(13%), 비정형(8%), 소망형(7%), 허가형과 의무형(5%), 명칭형(4%), 매입형과 가능형(3%), 언질형(1%)의 순서로 나타났다.

둘째, 8개 하이틴 요청 화행을 Gibbs(1986)의 요청 유형 연구 결과와 비교한 결과, Gibbs의 연구의 경우, 소망형(18%), 가능형(12%), 허가형(20%), 소유형(16%)의 사용이 8개 드라마 연구보다 그 사용빈도가 더 빈번하였으나 직접 요청형(35%), 직접 질문형(16%), 비정형(8%), 의무형(5%)의 경우 8개 드라마 분석결과에서 그 사용빈도가 더 높았다.

마지막으로, 요청 화행 연구의 자료 분석의 틀로서 연구한 하이틴 요청 화행 연구와 기존 고등학교 요청 표현을 분석한 김수민(2007)의 연구를 비교하여 재해석한 결과, 고등학교 5종 교과서에서는 8개 드라마 연구 결과에 비해 가능형(34%), 허가형(13%), 언질형(10%),

의무형(11%)의 사용이 빈번하였고, 8개 드라마에서는 5종 교과서에 비해 기술형(13%), 직접 요청형(35%)의 사용이 빈번하였다.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제언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8개 하이틴 요청 화행의 분석으로 Gibbs의 연구와는 다른 요청 유형 빈도의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하이틴 요청 화행에 나타난 직접 요청형과 비정형의 요청 표현 유형의 발생 빈도로 보아 앞으로 교과서 제작 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공손성의 정도보다 비 격식적인 요청 화행을 사용하고 있는 원어민의 문화적 환경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교과서 연구 시 비정형의 요청 표현에 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요청 유형 교수 시 요청 표현 유형의 형태에 대한 언어적 지식의 교수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위치, 거리, 부담감과 같은 사회적 관계가 명확하게 제시된 대화문 상황을 바탕으로 상황에 적절한 요청 화행 유형을 학습자들에게 교수할 것을 제안한다.

이와 같이 언어 학습자가 발화 상황적 문맥에 맞는 적절한 화용적 지식을 습득한다면 궁극적으로 외국어 학습의 목표인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이다.

# 목 차

## 논문개요

|   |    |
|---|----|
| I. 서론 .....                                     | 1  |
| 1.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 1  |
| 1.2 연구의 구성 및 제한점 .....                          | 3  |
| II. 이론적 배경 .....                                | 4  |
| 2.1 화행 .....                                    | 4  |
| 2.2 요청 표현과 공손 전략 .....                          | 5  |
| 2.2.1 Gibbs의 요청 이론 .....                        | 5  |
| 2.2.2 Brown & Levinson의 공손 이론 .....             | 9  |
| 2.3. 선행 연구 .....                                | 13 |
| III. 하이틴 드라마 요청 표현 분석.....                      | 15 |
| 3.1 연구 대상 및 범위 .....                            | 15 |
| 3.2 연구 내용 및 도구 .....                            | 16 |
| 3.3 8개 자료 분석.....                               | 18 |
| 3.4 8개 하이틴 드라마에 나타난 요청 표현 연구 결과 .....           | 56 |
| 3.5 Gibbs(1986)와 하이틴 요청 화행 연구 결과 비교.....        | 62 |
| 3.6 고등학교 교과서(2007)와 하이틴 요청 화행 연구 결과 비교<br>..... | 64 |

IV. 결론 및 제언 .....68

참고문헌

ABSTRACT

# 도 목 차

|  |    |
|--|----|
| [그림 1] FTA 수행 시 공손 전략 .....                | 10 |
| [그림 2] Gibbs(1981)연구와 8개 대본 요청 유형 빈도 ..... | 63 |
| [그림 3] 고등학교 5종 교과서와 8개 드라마 요청 유형 비교 .....  | 65 |

## 표 목 차

|   |     |
|---|-----|
| <표 1> Gibbs(1981)의 요청 표현의 각 유형별 발생빈도 비율 | ·8  |
| <표 2> 연구 분석 대상                          | ·15 |
| <표 3> 홍이선(2002)의 사회적 관계 표               | ·17 |
| <표 4> A 자료 발화 맥락 상황과 사회적 관계             | ·18 |
| <표 5> A 자료 발화 맥락 별 요청 표현 빈도(%)          | ·19 |
| <표 6> A 자료 사회적 관계에 따른 공손 전략 빈도          | ·20 |
| <표 7> B 자료 발화 맥락 상황과 사회적 관계             | ·22 |
| <표 8> B 자료 발화 맥락 별 요청 표현 빈도(%)          | ·23 |
| <표 9> B 자료 사회적 관계에 따른 공손 전략 빈도          | ·24 |
| <표 10> C 자료 발화 맥락 상황과 사회적 관계            | ·25 |
| <표 11> C 자료 발화 맥락 별 요청 표현 빈도(%)         | ·26 |
| <표 12> C 자료 사회적 관계에 따른 공손 전략 빈도         | ·28 |
| <표 13> D 자료 발화 맥락 상황과 사회적 관계            | ·29 |
| <표 14> D 자료 발화 맥락 별 요청 표현 빈도(%)         | ·30 |
| <표 15> D 자료 사회적 관계에 따른 공손 전략 빈도         | ·31 |
| <표 16> E 자료 발화 맥락 상황과 사회적 관계            | ·32 |
| <표 17> E 자료 발화 맥락 별 요청 표현 빈도(%)         | ·33 |
| <표 18> E 자료 사회적 관계에 따른 공손 전략 빈도         | ·34 |
| <표 19> F 자료 발화 맥락 상황과 사회적 관계            | ·35 |
| <표 20> F 자료 발화 맥락 별 요청 표현 빈도(%)         | ·36 |
| <표 21> F 자료 사회적 관계에 따른 공손 전략 빈도         | ·38 |
| <표 22> G 자료 발화 맥락 상황과 사회적 관계            | ·39 |
| <표 23> G 자료 발화 맥락 별 요청 표현 빈도(%)         | ·40 |

|  |    |
|--|----|
| <표 24> G 자료 사회적 관계에 따른 공손 전략 빈도        | 41 |
| <표 25> H 자료 발화 맥락 상황과 사회적 관계           | 42 |
| <표 26> H 자료 발화 맥락 별 요청 표현 빈도(%)        | 43 |
| <표 27> H 자료 사회적 관계에 따른 공손 전략 빈도        | 44 |
| <표 28> 8개 드라마 분석 자료 별 사회적 관계 발생 빈도 수   | 45 |
| <표 29> 8개 드라마에 나타난 사회적 관계에 따른 공손 전략 빈도 | 47 |
| <표 30> Gibbs의 요청 표현 유형에 따른 8개 대본 분석 결과 | 56 |

# I. 서 론

## 1.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지난 7차 개정 교육과정 이후, 우리 중·고등학교의 영어 교육 현장에서는 의사소통기능 강화에 역점을 두어 왔다. 이러한 영어교육 목표 제도의 전환에 부합하고자 영어 교과서도 학생들의 보다 자연스러운 의사소통 능력 배양을 위해 일상 생활 대화 영어의 비중을 늘려왔다. 이와 더불어 영어 교과서의 의사소통 기능 교육과정의 효율성을 평가하고자 하는 연구도 늘어났다. 그리하여 영어 교과서 대화문에 나타난 요청 화행의 유형 및 빈도 조사는 이 같은 연구들의 주요한 주제 중의 하나가 되어 왔다. 그 이유는 요청 표현의 올바른 사용은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타인과의 대화를 원만하게 이끌어가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기존의 중·고등 학교 영어 교과서 대화 요청 유형과 빈도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Gibbs(1981, 1986)의 연구를 기준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Gibbs의 연구는 우리 중·고등학생들과는 연령이 다른 미국 대학생들의 발화를 분석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그의 연구 결과를 중·고등학교 요청 화행 유형 분석 연구 결과에 적용하기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 우리 중·고등학교 영어 교과서 분석을 위한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고자 이 논문은 미국과 캐나다 하이틴 드라마에 나오는 요청 화행 유형과 그 빈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Gibbs(1986)의 연구에서 사회적 관계와 부담감의 상황적 맥락과 같이 연구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깊이 있게 다루어 지지 않았던 요청 화행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Brown & Levinson(1987)은 타인과의 의사소통 상황 시 화자의 욕구 충족을 위해 청자의 체면에 자칫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요청 상황에서 화자는 청자와의 사회적 관계와 상황적 부담감에 따라 일정한 공손 전략에 따라 화자의 욕구를 충족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공손 규칙은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영미 문화권에서는 우리나라처럼 공손 어법이 의문문이나 평서문에서 규칙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대화 상대자와의 사회적 관계와 상황적 부담감에 따라 어휘 선택을 달리하며 요청 상황 시 나름대로의 공손 규칙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요청 표현 유형에 관한 연구는 요청 표현이 사용되는 상황·문맥적, 문화적 이해를 통해 요청 표현 유형에 관한 언어적 지식과 함께 언어 사용 지식에 대한 이해를 습득하여 Canale & Swain(1980)의 사회 언어학적 능력(sociolinguistic competence)향상을 통해 궁극적으로 언어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communicative competence)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요약 될 수 있다. 요청 표현의 진정성(authentic)있는 구현을 위해 실제 의사소통 상황과 가장 유사한 구어체 대화문이 제시되어 있는 미국과 캐나다 하이틴 드라마에 나타난 청소년들의 요청 화행의 유형 및 그 빈도를 조사한 후, 이 논문에서 얻은 미국과 캐나다 10대 청소년들의 요청 화행 유형 및 빈도를 Gibbs(1986)의 연구에 제시된 미국 대학생들의 요청 화행 유형 및 빈도와 비교를 하여 그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더해 이 논문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기존에 이루어진 고등학교 영어교과서에 나타난 요청 화행 유형 및 빈도 연구 결과를 재해석하고자 한다.

## 1.2. 연구의 구성 및 제한점

본 연구는 하이틴 드라마의 요청 표현 분석을 위해 먼저 화행이론, Gibbs(1981, 1986)의 요청이론, Brown & Levinson(1987)의 공손이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8개의 하이틴 드라마의 각 1회만을 선택한 후, 71개의 일정한 발화 맥락 상황을 발췌하여 요청 표현의 공간적 분포와 빈도수, 화자와 청자의 사회적 관계의 변화에 따라 Brown & Levinson의 4가지 공손 전략 중 어떠한 요청 유형을 사용하여 공손 전략을 달성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이틴 요청 화행의 연구결과를 대학생들을 실험대상으로 선정한 Gibbs(1986)의 요청 표현 연구결과와 비교하여 차이점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이 논문의 연구 결과를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요청표현을 분석한 김수민(2007)의 연구 결과와 비교하여 기존의 연구결과의 오류를 재해석하고자 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면에서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드라마에 나타난 상황 설정은 자연스런 상황이 아닌 허구적(fictional)인 요소를 가미하여 미리 계획된 발화 상황이 많아 드라마 대본 분석을 통해 100% 실생활(real life)에서 사용하는 진정성(authentic)있는 영어 표현을 발췌하는 데에는 제약이 따른다.

둘째, Brown & Levinson(1987)의 공손성 연구의 4가지 전략에 속하지 않는 유형은 기타 질문형으로 분류하여 공손 전략 연구에서 제외하여, 요청 화행이 모두 공손성의 원리를 따르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연구의 제약이 있다.

## II. 이론적 배경

### 2.1. 화행(Speech Act)

화행(speech act)이란 Austin(1962)의 정의에 따르면 ‘말이 곧 행 위 한다.’는 의미로서 언어가 사용되는 상황적, 문화적, 관습적 맥락과의 관련성에 대해 연구하는 화용론(pragmatics)의 한 분야이다. Austin(1962)은 화자의 발화는 상황에 따라 표면적인 의미(locutionary act) 외에 내재된 의미(illocutionary act)를 지닌다고 보았다. 그럼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1) 가. Let's go to the movies tonight.

나. I wonder when the movie starts.

(1-가)예문에서 화자는 청자에게 영화관에 가자고 직접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반해 (1-나)는 표면적 의미는 영화가 언제 시작하는지에 대한 화자의 궁금한 심경을 나타내고 있지만 내재된 의미는 청자에게 영화가 시작하는 시각을 간접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이에 더해 이 문장은 청자로 하여금 시계를 보고 시각을 이야기하도록 하는 발화 수반력(perlocutionary act)을 가지고 있다. (1-가)와 같이 문장의 표면적 의미와 내면적 의미가 일치하는 문장을 직접 화행이라 하고 반대로 (1-나)와 같이 문장의 표면적 의미와 내면적 의미가 일치하지 않는 문장을 간접화행이라고 한다.

본 연구의 요청 화행 분석에서는 직접 화행과 간접 화행을 모두 다루고자 한다.

## 2.2 요청표현과 공손 전략

### 2.2.1. Gibbs의 요청 표현

요청이란 Bach & Harnish(1982)의 정의에 따르면 화자의 의도된 목적 달성을 위해 청자가 수행하기를 바라는 화자의 욕구의 표현이다<sup>1</sup>. 이와 관련하여 Gibbs(1981)는 미국 San Diego 캘리포니아 대학에 다니는 28명의 원어민 대학생을 대상으로 16개의 가상 상황을 설정한 후 각 상황에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요청 표현을 적도록 하여 요청 유형을 13가지로 분류한 후, 빈도수와 관습성을 조사하였다. Gibbs의 실험을 바탕으로 한 요청 표현의 유형과 빈도수는 다음과 같다.

① 소망형(want/desire): 청자가 특정 행동을 수행해 주기를 바라는 청자의 욕구를 나타내는 유형

예) I would like to...

I want...

I need...

② 가능형(ability): 청자에게 화자가 바라는 욕구를 수행할 능력이

---

<sup>1</sup> Bach & Harnish의 정의(1982:48)

Requests express the speaker's desire that the hearer do something. Moreover, they express the speaker's intention that the hearer take this expressed desire as a reason to act. The corresponding perlocutionary intentions, as might be foreseen, are that the hearer takes the speaker actually to have the desire and the intention he is expressing and that the hearer perform the action requested of him.

있는 지에 대해 묻는 유형

예) Could you...?

Can you...?

Is it possible for you to...?

③ 기술형 (state of the world): 화자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진술하여 청자가 어떠한 수행이 필요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유형

예) My car's broken down. (One tree hill: 2003: 12)

④ 허가형 (permission): 화자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청자로부터 허락을 요청하는 유형

예) May I...?

Can I...?

⑤ 직접 질문형 (direct question): 화자가 청자에게 직접 질문하는 유형으로 질문의 표면적 형태 그대로의 대답이 요청에 응답하는 유형

예) How much? (Dawson's creek: 1998: 9)

⑥ 명칭형 (name only): 청자가 대상물에 대해 원하는 행동을 취할 것을 화자가 간단히 진술하는 유형

예) Red ones. (Smallville: 2001: 1)

⑦ 소유형 (possession): 화자가 원하는 대상물을 청자가 가지고 있는지를 질문하는 유형

예) Do you have...?

Do you carry...?

⑧ 직접 요청형(direct request): 화자가 청자에게 직접적이고 명령적인 요청표현으로 진술하는 유형

예) Close your eyes. (The hills: 2006: 2)

⑨ 부담형(imposition): 화자가 원하는 행동을 청자에게 수행할 기회를 제공하는 유형

예) Would you mind...?

⑩ 언질형(commitment): 화자가 원하는 행동을 청자가 수행할 의지가 있는지를 묻는 유형

예) Will you...?

Would you...?

⑪ 비정형(unique): 일반적인 특징은 없고 몇몇의 독특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는 유형

예) How about...?

⑫ 매입형(embedded): 화자가 요청하기 위해 다른 유형의 목록에 한 유형을 삽입하는 유형

예) I was wondering if you could...

⑬ 의무형(obligation): 청자가 화자가 원하는 행동을 수행할 의무적인 상황 하에 놓여있는지 아닌지를 질문하는 유형

예) Shouldn't you...?

위와 같이 13가지 요청 유형의 결과가 제시된 Gibbs의 1981년 연구는 사회적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피험자들로부터 요청 표현을 발췌한 한계점이 있었다. 이에 Gibbs는 1986년 연구에서 사회적 맥락에 따라 어떠한 간접 요청이 더 빈번히 사용되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에 Santa Cruz 캘리포니아 대학의 27명의 원어민 대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회적 관계 아래 제시된 18개의 상황에서 486개의 요청 화행을 추출하여 어떠한 요청 표현이 좀더 관습적으로 사용되는지를 연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도출된 연구 결과를 표로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 Gibbs(1986)의 요청 표현의 각 유형별 발생 빈도 비율

| 요청 표현 유형                   | 발화 유형                  | 비율 (%) |
|----------------------------|------------------------|--------|
| 1. 허가형(permission)         | May I...?              | 20     |
| 2. 소망형(want/desire)        | I would like...        | 18     |
| 3. 기술형(state of the world) | That's my sweater.     | 16     |
| 4. 소유형(possession)         | Do you have...?        | 16     |
| 5. 가능형(ability)            | Can you...?            | 12     |
| 6. 직접 질문형(direct question) | What time is it?       | 7      |
| 7. 부담형(imposition)         | Would you mind...?     | 3      |
| 8. 명칭형(Name only)          | A beer.                | 2      |
| 9. 매입형(embedded)           | I was wondering if you | 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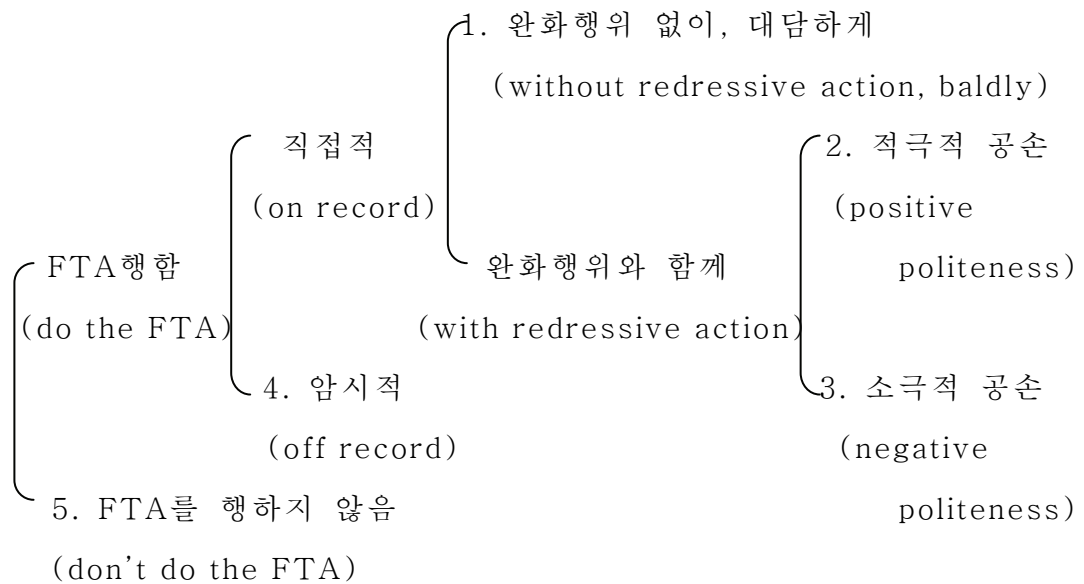
|                            |                         |   |
|----------------------------|-------------------------|---|
|                            | could...?               |   |
| 10. 언질형(commitment)        | Will you...?            | 1 |
| 11. 직접 요청형(direct request) | Give me a beer.         | 1 |
| 12. 비정형(unique)            | How about an enchilada? | 1 |
| 13. 의무형(obligation)        | Shouldn't you...?       | 0 |

Gibbs(1986)의 연구에서 피험자들은 대체적으로 허가형(20%), 소망형(18%), 기술형과 소유형(16%), 가능형(12%)을 빈번히 사용하였으며 그 뒤로 직접 요청형(7%), 부담형(3%), 명칭형과 매입형(2%), 언질형과 유일형(1%)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의무형은 나타나지 않았다.

### 2.2.2. Brown & Levinson의 공손 이론

Brown & Levinson(1987, 이하 B&L)은 구성주의의 맥락을 바탕으로 서로 관련성이 없는 문화권(English, Tzeltal, Tamil) 사람들의 언어 사용법을 조사하여 ‘공손’의 관점에서 대화 교류 시 공통점을 발견하려 하였다. B&L은 ‘공손’이라는 전략 사용을 통해 화자 자신이 본래 의도했던 목적을 청자의 체면을 최대한 덜 손상시킴으로써 달성하고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 질서를 유지하게 된다고 보았다. 여기서 ‘체면’이란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남을 대하기에 몇몇한 도리 혹은 자아상’을 의미하며 B&L(1987)은 이 체면을 크게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인 적극적 체면(positive face)과 타인의 체면 손상을 최소화 하려는 욕구인 소극적 체면(negative face)으

로 구분하였다.<sup>2</sup> 사람들은 타인과 의사소통 시 누구나 자신의 체면을 유지하고자 한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화자 자신의 욕구 달성을 위해 청자의 체면을 위협해야 할 경우, 화자는 화자와 청자간의 사회적 위치(rank of power), 유대성에 의한 사회적 거리감(social distance), 그리고 상황적 부담감(impositions)의 정도에 따라 체면위협 행위(face threatening act: 이하 FTA) 수행 시 다음의 5가지 전략 중 한가지를 선택한다고 보고 있다.



[그림 1] FTA 수행 시 공손 전략 (B&L: 1987: 69)

<sup>2</sup> Brown & Levinson(1987:61)

a. negative face: the basic claim to territories, personal preserves, right to non-distractedness; i.e., to freedom of action and freedom from imposition

b. positive face: the positive consistent self-image or personality (crucially including the desire that this self-image be appreciated and approved of) claimed by interactions.

B&L은 체면 위협 행위는 위의 3가지 변인의 정도에 따라 완화행위 없는 직접적 표현의 전략에서부터 적극적 공손 전략, 소극적 공손 전략, 암시적 표현 전략 순으로 전략을 사용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때 화자가 청자의 체면을 반드시 손상할 경우 [그림 1]의 5번과 같이 FTA를 행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FTA를 행하기 위해 가능한 4가지 전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완화 없이 대담하게 행하는 직접적 표현의 FTA전략 사용의 예는 다음과 같다.

(2) 가. I wanna see my apartment. (The hills: 2006: 1)

나. Turn off that computer! (Degrassi: 2001: 2)

위와 같이 완화행위 없는 직접적 표현의 FTA는 화자의 (2-가)와 같이 화자와 청자의 사회적 위치와 거리가 같고 부담감을 느끼지 않는 친구 관계의 상황, (2-나)와 같이 화자의 상대적인 위치가 청자보다 높은 어머니와 딸의 관계와 같이 청자의 체면을 쉽게 손상시킬 수 있고 화자 자신에게 FTA의 부담감이 따르지 않는 상황에서 주로 행하여 진다.

둘째, 완화 행위를 통한 적극적 공손(positive politeness) FTA 전략 사용의 예는 다음과 같다.

(3) *Let's put on some music and dance.* (Laguna beach: 2004: 15)

위의 예문은 친구 관계에서 ‘we’라는 의미를 포함하는 ‘Let’s’라는 구문을 통해 화자와 청자를 모두 행위에 참여시키는 적극적 공손 전략을 통해 FTA를 완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적극적 공손 전략에는 축약, 애칭과 같은 동질 그룹 표식어의 사용, 농담, ‘Why don’t you...?’와 같은 이유제시의 표현, ‘I’ll do X for you, if you do Y for me.’와 같은 상호성을 전제로 하는 요청 표현 등이 이에 속한다.

셋째, 완화행위를 통한 소극적 공손(negative politeness) FTA 전략 사용의 예는 다음과 같다.

(4) *It would be nice, if you do it.* (Dawson’s creek: 1998: 12)

할머니와 손녀 사이와 같이 사회적 위치가 다르고 사회적 거리가 가까운 가족 관계에서 아침 식사 시간에 기도를 완강히 거부하는 손녀에게 계속적인 신앙 강요 상황에 부담감을 느낀 할머니는 주절의 행위자를 ‘it’으로 대체하는 비 인칭화 전략을 통한 소극적 공손법에 의해 화자의 욕구를 전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극적 전략에는 화자의 삼가는 태도, 관용적 간접 표현의 사용, ‘just’와 같은 부담 완화 표식의 사용, 존경, 사과의 표시 등의 전략이 속한다..

마지막으로 암시적 표현(off record)에 의한 FTA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 *There seems to have been some confusion with my schedule.*

(Dawson’s creek: 1998: 14)

위의 예문은 화자와 청자의 사회적 위치와 거리가 먼 처음 만난 교사와 학생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발화상황이다. 수강 신청 인원이 이미 다 찬 수업 상황에서 수강 신청을 미리 하지 못하고 무작정 첫 수업에 들어온 학생이 교사에게 수업 수강을 요구하고 있다. 원칙상 화자의 요구를 청자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사항이므로 화자의 욕구 달성 시 부담감이 많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화자는 자신의 욕구 달성 시 청자의 체면 손상이 발생할 것을 예측해 청자에게 힌트를 제공하는 암시적 표현의 사용을 통해 FTA를 행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암시적 표현 전략에는 힌트 제공 외에도, 연상단어의 제공, 과잉 일반화 등의 전략이 있다.

### 2.2.3. 선행연구

요청 표현에 관한 선행 연구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김희정(2007)은 실제 대학교에서 사용하는 영어회화 교재와 실제 대학생들의 영어회화 수업 내용을 분석하여 Gibbs(1981)의 13가지 요청 표현 유형을 기준으로 그 빈도와 적절성, 언어적 문화 특성에 관해 연구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대학교 영어회화 교재는 직접질문 유형에 편중된 점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이는 대학생들의 영어회화 수업 시간에도 이 표현 유형의 사용이 현저하게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영란(2003), 김미연(2004)의 연구에서도 중학교 3학년 교과서에 직접 질문 유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영어와 한국어의 요청 화형을 비교 연구한 고인수(1995)는 미국인이 간접적 요청 화형을 사용하는데 반해 한국어 화자는 경어를 중시하는 한국어의 특성 상 직접 질문형을 많이 사용한

다고 보았다. 배정순(2006)은 고등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에 나타난 화용적 상황이 대부분 모호하여 격식성의 적절성을 파악하기 힘들고 학생들이 상황에 따른 적절한 요청 화행 문장을 구사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임연숙(2006)은 Corpus에 의한 분석을 통해 Can you...?와 같은 능력에 의한 요청 전략이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점을 발견하였으며 미국인 화자들이 화자 지향적 관점, 관례적인 간접화행, 암시를 통하여 욕구를 전달하는 반면에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에 나타난 요청 유형은 청자 지향적인 관점, 관례적인 간접화행과 더불어 명령이나 소망형의 요청 유형으로 화자 자신의 욕구를 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에서 언급한 김희정(2007), 김영란(2003), 김미연(2004) 외 김수민(2007), 박정화(2007), 유정성(2008)과 같은 기존의 연구들은 중·고등학교 교과서 분석 시 대부분 Gibbs의 연구결과를 기준으로 요청 유형의 빈도수를 연구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하이틴 요청 화행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연구 분석의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 Ⅲ. 하이틴 드라마 요청 표현 분석

#### 3.1. 연구 대상 및 범위

본 연구는 영어권 고등학생들이 사용하는 요청 표현 유형의 빈도수 조사와 사회적 관계에 따른 요청 화행의 공손성 연구를 위해 미국과 캐나다 드라마 8편에 나타난 427개의 요청 화행을 대상으로 요청 표현의 유형, 빈도수, 공손 전략을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의 범위는 청자와 화자와의 사회적 거리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각 드라마의 Episode 1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각각의 Episode에서 일정한 발화 문맥 상황(총 71)을 설정한 후 이와 관련된 요청 표현을 연구자료로 발췌하였다. 각 대본은 분석의 편의를 위해 알파벳순서에 따라 A-H로 표기한다.

<표 2> 연구 분석 대상

| 분석 자료   | 분석 대화문 수 |
|---|----------|
| A. Dawson's Creek(1998)                       | 76       |
| B. Degrassi: The Next Generation(2001)        | 52       |
| C. Gossip Girl(2007)                          | 49       |
| D. The Hills (2006)                           | 58       |
| E. Laguna Beach: The Real Orange County(2004) | 26       |
| F. The O.C(2003)                              | 58       |
| G. One Tree Hill(2003)                        | 63       |
| H. Smallville(2001)                           | 45       |
| 총 분석 대화문 수                                    | 427      |

### 3.2. 연구 내용 및 도구

Gibbs의 13가지 요청 표현 유형을 기준으로 하여 대본에 나타난 요청표현을 조사하여 각각의 Episode에서 발췌된 특정 상황에서 사용되는 요청 표현의 발화 맥락적 분포와 각 유형별 빈도수를 조사한다. 또한 사회적 거리, 지위와 같은 사회적 관계에 따라 상대의 체면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공손 전략을 가장 빈번히 사용하는지 홍이선(2002: 34)의 사회적 관계 표를 기준으로 B&L의 공손 전략<sup>3</sup> 사용 빈도 수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이때 B&L의 4가지 공손 전략에 속하지 않는 발화 수반력을 가진 질문들은 기타 질문형으로 분류하였다.

---

<sup>3</sup> Brown & Levinson의 공손 전략(1987: 93-207)

1. 완화 행위 없이 직접적 표현

2. 적극적 공손

: 청자에 대한 관심 표명, 과장, 청자에 대한 관심 증강, 동질그룹 표식어 사용, 동의구함, 반대화피, 공감대 부각, 농담, 상대에 대한 지식 전제, 제의 또는 약속, 낙관적 태도, 행위 속에 상대 포함, 이유제시, 상호성 가정, 청자에게 호의 표시

3. 소극적 공손

: 관용적 간접 표현, 질문, 울타리 표현, 부담의 최소화, 존경표시, FTA에 대한 사과, 화자와 청자의 비인칭화, 일반규칙으로서의 FTA 진술, 명사화, 빚진 것을 진술

4. 암시적 표현

: 힌트 제공, 연상되는 단서 제공, 전제, 축소 발언 등

<표 3> 홍이선(2002)의 사회적 관계 표

| 사회적 지위<br>(RELATIVE POWER) | 사회적 거리<br>(SOCIAL DISTANCE) | 예<br>(EXAMPLE) |
|----------------------------|-----------------------------|----------------|
| 1. 화자=청자                   | 아는 사이                       | 친구의 친구         |
| 2. 화자=청자                   | 모르는 사이                      | 처음 만난 친구       |
| 3. 화자=청자                   | 가족 관계                       | 형제, 부부         |
| 4. 화자=청자                   | 친구 관계                       | 친구             |
| 5. 화자>청자<br>화자<청자          | 아는 사이                       | 교사와 학생         |
| 6. 화자>청자<br>화자<청자          | 모르는 사이                      | 점원과 손님         |
| 7. 화자>청자<br>화자<청자          | 가족 관계                       | 부모와 자녀         |

위의 표에서 화자와 청자의 사회적 위치가 같은 경우 '='로 표시하였으며 사회적 지위에 차이가 날 경우 '> or <' 부등호를 사용하였다. 사회적 거리는 유대성(solidarity)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위에 제시된 관련 예는 사회적 관계 표 이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상황에 따라서 또한 청자와 화자 사이의 사회적 거리에 변할 수 있는 상대적 대응 관계이다.

### 3.3. 8개 자료 분석

#### 3.3.1. A 자료 분석

‘Dawson’s creek’ 대본에서는 10개의 발화 맥락 상황에서 76개의 요청 화행을 발체하였다. A 드라마의 연구의 틀이 되었던 10가지의 상황과 사회적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 A 자료 발화 맥락 상황과 사회적 관계

| 발화 맥락 상황     | 사회적 위치         | 사회적 거리 |
|--------------|----------------|--------|
| 가. 헤어질 때     | 화자=청자          | 친구 관계  |
| 나. 비디오 야외 촬영 | 화자=청자          | 친구 관계  |
| 다. 옷에 관한 다툼  | 화자=청자          | 가족 관계  |
| 라. 비디오 가게    | 화자>청자<br>화자<청자 | 모르는 사이 |
| 마. 아침 식사     | 화자>청자<br>화자<청자 | 가족 관계  |
| 바. 첫 수업 시간   | 화자>청자<br>화자<청자 | 모르는 사이 |
| 사. 데이트 신청    | 화자=청자          | 친구 관계  |
| 아. 중요한 부탁하기  | 화자=청자          | 친구 관계  |
| 자. 종교적 신념 권유 | 화자>청자<br>화자<청자 | 가족 관계  |

|        |         |        |
|--------|---------|--------|
| 차. 영화관 | 화자 > 청자 | 아는 사이/ |
|        | 화자 < 청자 | 모르는 사이 |
|        | 화자 = 청자 | 친구 관계  |

A자료는 10개의 발화 맥락 상황에서 친구 관계가 5회, 사회적 위치가 같은 가족 관계 1회(자매), 사회적 위치가 다른 가족 관계 2회, 모르는 사이 3회, 아는 사이가 1회씩 발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분석한 각 상황 별 요청 발화의 빈도 수는 다음과 같다.

<표 5> A 자료 발화 맥락 별 요청 표현 빈도(%)

|         | 가 | 나 | 다 | 라 | 마 | 바 | 사 | 아 | 자 | 차 | 빈도(%)  |
|---------|---|---|---|---|---|---|---|---|---|---|--------|
| 1. 소망   |   |   |   | 1 |   |   |   | 2 |   |   | 3(4)   |
| 2. 가능   |   |   |   |   |   | 1 |   |   |   |   | 1(1)   |
| 3. 기술   | 3 | 1 | 1 | 3 | 3 | 2 |   | 2 | 1 |   | 16(21) |
| 4. 허가   |   |   |   | 1 |   |   |   |   | 1 |   | 2(3)   |
| 5. 직접질문 | 3 | 1 |   | 4 | 1 | 2 |   |   |   | 1 | 12(16) |
| 6. 명칭   |   | 1 |   |   |   |   |   |   |   |   | 1(1)   |
| 7. 소유   |   |   |   |   |   |   |   |   |   |   | -      |
| 8. 직접요청 | 3 | 5 | 2 | 3 | 4 | 1 | 5 | 2 | 3 | 2 | 30(40) |
| 9. 부담   |   |   |   |   |   |   |   |   |   |   | -      |
| 10. 연결  |   |   |   |   |   |   | 1 |   |   |   | 1(1)   |
| 11. 비정형 |   |   |   | 1 |   |   |   |   |   | 1 | 2(3)   |
| 12. 매입형 |   |   |   | 2 | 2 |   |   |   |   |   | 4(5)   |
| 13. 의무형 |   | 1 |   |   |   |   | 1 |   | 1 | 1 | 4(5)   |

|   |   |   |   |    |    |   |   |   |   |   |         |
|---|---|---|---|----|----|---|---|---|---|---|---------|
| 계 | 9 | 9 | 3 | 15 | 10 | 6 | 7 | 6 | 6 | 5 | 76(100) |
|---|---|---|---|----|----|---|---|---|---|---|---------|

A 자료에서는 (가)의 친구에게 하룻밤 자고 가기를 요청하는 상황에서 'Spend the night.' 등의 직접 요청유형이 40%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라)의 비디오 가게에서 손님 영화 취향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I'm vintage.' 등의 기술형이 21%, 'How much?', 등의 직접 질문 유형이 16%, 'Do you think I could help you locate a video this afternoon?'과 같은 매입형의 사용이 5%, (자)와 같이 손녀딸에게 종교적 신념을 권유하는 할머니의 요청 상황에서 'You have to lighten up.'과 같은 의무형이 5%, (아)의 친구에게 더블 데이트를 요청하는 상황에서 'I need a favor.'와 같은 소망형이 4%, 비디오 가게에서 점원이 손님에게 비디오를 대여해 주며 사용하는 관례적 표현인 'Here you go.'와 같은 비정형이 3%, 가능형, 소유형, 언질형이 1%의 비율을 보였다.

사회적 관계에 따른 공손 전력의 빈도는 다음과 같다.

<표 6> A 자료 사회적 관계에 따른 공손 전략 빈도

|           | 화자=청자 |   |   |    | 화자>청자<br>화자<청자 |    |   | 계  |
|-----------|-------|---|---|----|----------------|----|---|----|
|           | 아     | 모 | 가 | 친  | 아              | 모  | 가 |    |
| 1. 직접적 표현 |       |   | 2 | 19 | 2              | 3  | 4 | 30 |
| 2. 적극적 공손 |       |   |   | 1  |                | 2  |   | 3  |
| 3. 소극적 공손 |       |   |   | 4  |                | 10 | 7 | 21 |

|           |  |  |   |    |   |    |    |    |
|-----------|--|--|---|----|---|----|----|----|
| 4. 암시적 표현 |  |  | 1 | 4  |   | 5  | 3  | 13 |
| 5. 기타 질문  |  |  |   | 4  |   | 4  | 1  | 9  |
| 계         |  |  | 3 | 32 | 2 | 24 | 15 | 76 |

(아: 아는 사이, 모: 모르는 사이, 가: 가족 관계, 친: 친구 관계)

사회적 관계에 따른 공손 전략 분석에서 친한 친구 사이일 경우, 직접적 표현의 사용(19/32)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극적 공손의 사용(4/32)이 적극적 공손의 사용(1/32)보다 빈번한 이유는 (아)의 상황과 같이 친한 이성 친구에게 더블 데이트 부탁을 하는 상황에서 ‘Come on Joey, please’와 같은 문장과 같이 ‘please’와 같은 공손 표식어의 사용을 통해 소극적 공손 전략을 행하는 표현이 자주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화자와 청자의 사회적 위치가 다른 모르는 사이의 경우, 직접적 표현, 적극적 공손 전략 보다는 소극적 공손 전략의 사용(10/24)이 빈번하였다.

### 3.3.2. B 자료 분석

‘Degrassi’에서는 10개의 상황 아래 51개의 요청 화행을 발췌하였다. 발화 맥락 상황과 사회적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7> B 자료 발화 맥락 상황과 사회적 관계

| 발화 맥락 상황       | 사회적 위치         | 사회적 거리 |
|----------------|----------------|--------|
| 가. 컴퓨터 사용      | 화자=청자          | 친구 관계  |
|                | 화자>청자<br>화자<청자 | 가족 관계  |
| 나. 등교 준비       | 화자>청자<br>화자<청자 | 가족 관계  |
| 다. 방 청소        | 화자>청자<br>화자<청자 | 가족 관계  |
| 라. 친구의 아이와의 대화 | 화자>청자<br>화자<청자 | 아는 사이  |
| 마. 학교 생활 지도    | 화자>청자<br>화자<청자 | 아는 사이  |
| 바. 전화 대화       | 화자=청자          | 친구 관계  |
| 사. 친구의 사생활 질문  | 화자=청자          | 친구 관계  |
| 아. 동창회 모임      | 화자=청자          | 친구 관계  |
|                | 화자>청자<br>화자<청자 | 모르는 사이 |
| 자. 설득하기        | 화자=청자          | 친구 관계  |
| 차. 조언 구하기      | 화자>청자          | 아는 사이  |
|                | 화자<청자          |        |

B자료에서는 10개의 발화 맥락 안에서 친구 관계가 5회, 사회적 위치가 다른 가족 관계가 3회, 아는 사이가 3회, 모르는 사이가 1회

발생하였다. 다음은 발화 맥락 별 요청 표현의 발생 빈도이다.

<표 8> B 자료 발화맥락 별 요청 표현 빈도(%)

|         | 가  | 나 | 다 | 라 | 마 | 바 | 사 | 아 | 자 | 차 | 비율(%)   |
|---------|----|---|---|---|---|---|---|---|---|---|---------|
| 1. 소망   | 1  |   |   |   |   | 1 |   |   | 1 | 1 | 4(8)    |
| 2. 가능   | 2  |   |   | 1 |   |   |   |   |   |   | 3(6)    |
| 3. 기술   |    | 2 | 2 |   |   | 1 |   | 1 | 1 |   | 7(13)   |
| 4. 허가   | 1  |   |   |   |   | 1 |   | 2 |   | 2 | 6(11)   |
| 5. 직접질문 | 1  | 1 |   |   |   |   | 1 | 1 | 1 | 1 | 6(11)   |
| 6. 명칭   | 1  |   |   |   |   | 2 |   |   |   | 1 | 4(8)    |
| 7. 소유   |    |   |   |   |   |   |   |   |   |   | -       |
| 8. 직접요청 | 6  | 1 |   |   | 6 | 4 |   |   | 1 | 1 | 19(37)  |
| 9. 부담   |    |   |   |   |   |   |   |   |   |   | -       |
| 10. 언질  |    |   |   |   |   |   |   |   |   |   | -       |
| 11. 비정형 |    | 1 |   |   |   |   |   |   |   |   | 1(2)    |
| 12. 매입형 |    |   |   |   |   |   |   |   |   |   | -       |
| 13. 의무형 |    |   |   |   |   |   |   |   | 1 | 1 | 2(4)    |
| 계       | 12 | 5 | 2 | 1 | 6 | 9 | 1 | 4 | 5 | 7 | 52(100) |

위의 표를 살펴보면 B 대본에서는 (가)의 친구와 함께 인터넷 서핑을 하는 상황에서 ‘Go back.’, ‘Wait.’과 같은 직접 요청형, (마)의 학교에서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 상황에서 ‘No running!’과 같은 직접 요청형이 37%로 가장 빈번히 사용되었다. 이 외에 (사)의 상황에서 ‘What’s your dinosaur’s name?’과 같은 직접 질문형과 (아)의 상황

에서 ‘Can we...?’와 같은 허가형이 11%을 나타냈다. 그 뒤로는 (차)와 같은 연애 상담 상황에서 ‘I want details.’와 같은 소망형 8%, (바)의 전화대화 상황에서 ‘Just one more second.’와 같은 명칭형 8%, 가능형 6%, 이어 의무형 4%, 비정형 2% 순으로 빈도를 보였다.

B 자료에 나타난 사회적 관계에 따른 공손 전략의 사용 빈도는 다음과 같다.

<표 9> B 자료 사회적 관계에 따른 공손 전략 빈도

|           | 화자 = 청자 |   |   |    | 화자 > 청자<br>화자 < 청자 |   |    | 계  |
|-----------|---------|---|---|----|--------------------|---|----|----|
|           | 아       | 모 | 가 | 친  | 아                  | 모 | 가  |    |
| 1. 직접적 표현 |         |   |   | 11 | 8                  |   | 6  | 25 |
| 2. 적극적 공손 |         |   |   | 1  |                    |   | 4  | 5  |
| 3. 소극적 공손 |         |   |   | 8  | 4                  | 1 | 2  | 14 |
| 4. 암시적 표현 |         |   |   | 2  |                    |   | 3  | 5  |
| 5. 기타 질문  |         |   |   | 2  | 1                  |   |    | 3  |
| 계         |         |   |   | 24 | 13                 | 1 | 15 | 51 |

(아: 아는 사이, 모: 모르는 사이, 가: 가족 관계, 친: 친구 관계)

B 자료에서는 친한 친구 사이에 직접적 표현 전략이 (11/24)회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또한 친구 관계에서 동창회 참석을 거부하는 친구를 설득하는 상황에서 부담감을 느낀 화자는 사회적 거리감이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We are sorry your wife is dead, but it’s been

a year.’와 같이 사과의 표지를 이용한 기술형의 소극적 공손 전략을 사용, ‘You really not gonna go?’와 같은 비관적 어조의 평서형 질문형을 통해 친구의 동창회 참석을 권유하는 소극적 공손 전략(8/24)을 사용하였다.

### 3.3.3. C 자료 분석

‘Gossip girl’에서 10개의 특정한 상황아래 49의 대화문을 발췌하여 이에 해당하는 요청 표현과 사회적 관계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아래 표는 발화 맥락 상황과 대화자간의 사회적 위치와 사회적 거리를 나타낸다.

<표 10> C 자료 발화 맥락과 사회적 관계

| 발화 맥락 상황    | 사회적 위치             | 사회적 거리           |
|-------------|--------------------|------------------|
| 가. 딸의 옷 코디  | 화자 > 청자<br>화자 < 청자 | 가족 관계            |
| 나. 대학 관련 상담 | 화자 > 청자<br>화자 < 청자 | 가족 관계            |
| 다. 파티       | 화자 = 청자            | 친구 관계/<br>모르는 사이 |
| 라. 식사 요청    | 화자 = 청자            | 친구 관계            |
| 마. 벽보 붙이기   | 화자 > 청자<br>화자 < 청자 | 가족 관계            |
| 바. 백화점      | 화자 = 청자            | 가족 관계            |

|           |                |        |
|-----------|----------------|--------|
| 사. 화해 하기  | 화자=청자          | 친구 관계  |
| 아. 연애 상담  | 화자>청자<br>화자<청자 | 가족 관계  |
| 자. 분실물 습득 | 화자>청자<br>화자<청자 | 모르는 사이 |
| 차. 진실고백   | 화자=청자          | 친구 관계  |

C 자료에서는 화자와 청자의 위치가 같은 형제 관계 1회, 모르는 사이 1회, 친구 관계가 4회 발생하였으며, 화자와 청자의 위치가 다른 부자 또는 모녀 관계 4회, 모르는 사이가 각 1회 발견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요청 표현의 상황 맥락적 분포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1> C 자료 발화맥락 별 요청표현 빈도(%)

|         | 가 | 나 | 다 | 라 | 마 | 바 | 사 | 아 | 자 | 차 | 빈도(%)  |
|---------|---|---|---|---|---|---|---|---|---|---|--------|
| 1. 소망   | 1 | 1 |   |   |   |   | 2 |   |   | 1 | 5(10)  |
| 2. 가능   |   |   |   |   |   |   |   |   |   |   | -      |
| 3. 기술   |   | 2 |   | 3 | 1 | 1 |   | 1 | 1 |   | 9(19)  |
| 4. 허가   | 1 |   | 1 |   |   |   |   |   |   |   | 2(4)   |
| 5. 직접질문 | 3 |   | 3 |   |   | 1 | 1 | 1 | 1 |   | 10(20) |
| 6. 명칭   |   |   |   |   |   |   |   | 2 |   |   | 2(4)   |
| 7. 소유   |   |   |   |   |   |   |   |   |   |   | -      |
| 8. 직접요청 | 1 |   | 1 | 1 | 3 | 2 | 1 | 2 |   |   | 11(23) |
| 9. 부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언질  |   |   |   |   |   |   |   |   |   |   | -       |
| 11. 비정형 |   |   | 2 | 2 |   |   | 2 |   |   |   | 6(12)   |
| 12. 매입형 | 1 |   |   |   |   |   |   | 1 |   |   | 2(4)    |
| 13. 의무형 |   |   |   |   |   |   | 1 | 1 |   |   | 2(4)    |
| 계       | 7 | 3 | 7 | 6 | 4 | 4 | 7 | 8 | 2 | 1 | 49(100) |

C 자료에서는 (마)와 같이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콘서트 홍보 포스터를 붙이는 상황에서 불평을 하던 아들의 ‘Save some trees.’와 같은 직접 요청형의 사용이 23%, (다)와 같은 파티상황에서 ‘What do you want to talk about?’과 같은 직접 질문형의 사용이 20%로 사용이 두드러졌으며 그 뒤로는 (라)와 같이 친구에게 식사를 권유하는 상황에서 ‘I’m hungry.’와 같은 기술형이 19%, ‘What about a grilled cheese with truffle oil?’과 같은 비정형이 12%, (사)와 같이 친구와 화해하는 상황에서 ‘I just want things to go back to the way we used to be.’와 같은 소망형의 사용이 10%로 사용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허가형, 명칭형, 매입형, 의무형이 4% 빈도를 보였다.

C자료에 나타난 사회적 관계에 따른 공손 전략의 사용 빈도는 다음과 같다.

<표 12> C 자료 사회적 관계에 따른 공손 전략 빈도

|           | 화자=청자 |   |   |    | 화자>청자<br>화자<청자 |   |    | 계  |
|-----------|-------|---|---|----|----------------|---|----|----|
|           | 아     | 모 | 가 | 친  | 아              | 모 | 가  |    |
| 1. 직접적 표현 |       |   | 2 | 3  |                |   | 9  | 14 |
| 2. 적극적 공손 |       |   |   | 10 |                | 1 | 7  | 18 |
| 3. 소극적 공손 |       | 1 |   | 3  |                |   | 4  | 8  |
| 4. 암시적 표현 |       |   | 1 | 3  |                |   | 2  | 6  |
| 5. 기타 질문  |       |   | 1 | 1  |                | 1 |    | 3  |
| 계         |       | 1 | 4 | 20 |                | 2 | 22 | 49 |

(아: 아는 사이, 모: 모르는 사이, 가: 가족 관계, 친: 친구 관계)

사회적 관계에 따른 공손 전략 빈도에서 C자료는 친한 친구 사이일 때 적극적 공손 전략의 사용이 (10/20)회로 두드러졌으며 화자와 청자의 위치가 다른 가족 관계, 즉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소극적 공손 전략 사용(4/22) 보다는 적극적 공손 전략(7/22)과 직접적 표현(9/22)의 사용이 빈번하였다. 이는 (아)와 같은 아버지와 아들의 상담 상황에서 아들의 도움이 꼭 필요한 아버지는 ‘You don’t give up.’ 과 같은 낙관론, ‘I will get it, if you just help me out a little bit.’ 와 같은 상호성을 가정한 적극적 공손 전략의 사용을 통해 자신의 욕구를 전달하는 상황 때문이다.

### 3.3.4. D 자료 분석

‘The hills’는 8개의 발화맥락 상황을 기준으로 58개의 요청 화행을 발췌하였다. D자료에 나타난 발화맥락과 사회적 관계에 관한 표는 다음과 같다.

<표 13> D 자료 발화맥락과 사회적 관계

| 발화 맥락 상황        | 사회적 위치         | 사회적 거리 |
|-----------------|----------------|--------|
| 가. 새로 이사온 날     | 화자=청자          | 친구 관계  |
| 나. 면접 전         | 화자=청자          | 친구 관계  |
| 다. 면접           | 화자>청자<br>화자<청자 | 모르는 사이 |
| 라. 면접 후         | 화자=청자          | 친구 관계  |
| 마. 대학교 등록일      | 화자>청자<br>화자<청자 | 모르는 사이 |
| 바. 면접 결과 통보(전화) | 화자>청자<br>화자<청자 | 모르는 사이 |
| 사. 인턴 첫 근무      | 화자>청자<br>화자<청자 | 모르는 사이 |
| 아. 파티           | 화자=청자          | 친구 관계  |
|                 | 화자>청자          | 아는 사이  |

D자료에서는 8개의 발화 맥락 상황 중 친구관계 4회, 사회적 위치가 다른 모르는 사이가 4회, 아는 사이가 1회 발견되었다. 상황 별

요청 표현의 빈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를 바탕으로 발화 맥락 별 요청 표현의 빈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14> D 자료 발화맥락 별 요청 표현 빈도(%)

|         | 가 | 나 | 다 | 라 | 마 | 바 | 사  | 아  | 빈도(%)   |
|---------|---|---|---|---|---|---|----|----|---------|
| 1. 소망   | 1 |   |   |   | 1 | 3 | 2  | 1  | 8(14)   |
| 2. 가능   |   |   | 2 |   |   | 2 |    | 1  | 5(9)    |
| 3. 기술   |   |   |   |   |   | 1 | 4  | 1  | 6(10)   |
| 4. 허가   |   |   | 1 |   | 1 |   | 3  | 1  | 6(10)   |
| 5. 직접질문 |   | 3 |   | 3 | 2 |   | 1  |    | 9(15)   |
| 6. 명칭   |   |   |   |   |   |   |    |    | -       |
| 7. 소유   |   |   |   |   |   |   |    |    | -       |
| 8. 직접요청 | 3 |   |   | 1 | 4 |   |    | 9  | 17(29)  |
| 9. 부담   |   |   |   |   |   |   |    |    | -       |
| 10. 연결  |   |   |   |   | 1 |   |    |    | 1(2)    |
| 11. 비정형 | 2 |   |   | 1 |   |   | 1  |    | 4(7)    |
| 12. 매입형 |   |   |   |   |   | 1 |    |    | 1(2)    |
| 13. 의무형 | 1 |   |   |   |   |   |    |    | 1(2)    |
| 계       | 7 | 3 | 3 | 5 | 9 | 7 | 11 | 13 | 58(100) |

전체적으로 (아)와 같은 파티 상황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Stop!’, ‘Stay here.’와 같은 직접 요청형이 29%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나)와 (라)같이 친구의 면접 준비 과정과 면접 결과에 대한 의문사 형태의 직접 질문형이 15%, (바)와 같이 전화 통화로 면접 결과를

알리는 상황에서 ‘We’d like to offer you an internship.’과 같은 소망형의 사용이 14%, (사)의 Teen Vogue 인턴 첫 근무 상황에서 ‘Today is my first day.’와 같은 기술형과 ‘You can sit right here.’과 같은 허가형의 사용이 10%로 나타났으며 (바)의 전화 통화 상황에서 ‘Can you hold, please?’와 같은 가능형이 9% 그 뒤로 비정형(7%), 매입형(2%), 의무형(2%) 순으로 나타났다.

D 자료에 나타난 사회적 관계에 따른 공손 전략의 빈도는 아래와 같다.

<표 15> D 자료 사회적 관계에 따른 공손 전략 빈도

|           | 화자=청자 |   |   |    | 화자>청자<br>화자<청자 |    |   | 계  |
|-----------|-------|---|---|----|----------------|----|---|----|
|           | 아     | 모 | 가 | 친  | 아              | 모  | 가 |    |
| 1. 직접적 표현 |       |   |   | 11 | 2              | 6  |   | 19 |
| 2. 적극적 공손 |       |   |   | 6  |                | 3  |   | 9  |
| 3. 소극적 공손 |       |   |   | 1  | 2              | 15 |   | 18 |
| 4. 암시적 표현 |       |   |   |    |                | 4  |   | 4  |
| 5. 기타 질문  |       |   |   | 6  |                | 2  |   | 8  |
| 계         |       |   |   | 24 | 4              | 30 |   | 58 |

(아: 아는 사이, 모: 모르는 사이, 가: 가족 관계, 친: 친구 관계)

친한 친구 사이일 경우, 완화행위가 없는 직접적 체면 위협 행위(11/24)가 많이 발생하였으며. 화자와 청자의 사회적 위치가 다르고 사회적 거리가 먼 모르는 사이일 경우, 소극적 공손 전략의 사용

(15/30)이 빈번하였다. 이는 인턴 면접 상황과 첫 근무 상황에서 모르는 사람과 대면하는 상황이 많아 소극적 전략의 사용이 빈번하였다.

### 3.3.5. E 자료 분석

‘Laguna beach’ 대본에서 3개의 발화맥락 상황을 기준으로 26개의 요청 표현을 추출하였다. E 자료에 나타난 발화 맥락과 사회적 관계는 다음과 같다.

<표 16> E 자료 발화맥락과 사회적 관계

| 발화 맥락 상황  | 사회적 위치 | 사회적 거리 |
|-----------|--------|--------|
| 가. 파티 준비  | 화자=청자  | 친구 관계  |
| 나. 전화 대화  | 화자=청자  | 친구 관계  |
| 다. 바베큐 파티 | 화자=청자  | 친구 관계  |

3개의 발화맥락 상황 모두 사회적 위치가 같고, 거리가 가까운 친구 관계이다. 이를 바탕으로 분석한 각 맥락 별 요청 표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7> E 자료 발화맥락 별 요청표현 빈도(%)

| 요청 유형   | 가 | 나 | 다  | 빈도(%)   |
|---------|---|---|----|---------|
| 1. 소망   | 1 |   | 3  | 4(15)   |
| 2. 가능   |   |   |    | -       |
| 3. 기술   |   | 1 |    | 1(4)    |
| 4. 허가   |   |   |    | -       |
| 5. 직접질문 | 2 |   | 2  | 4(15)   |
| 6. 명칭   |   |   |    | -       |
| 7. 소유   |   |   |    | -       |
| 8. 직접요청 | 1 | 4 | 4  | 9(35)   |
| 9. 부담   |   |   |    | -       |
| 10. 연결  |   |   |    | -       |
| 11. 비정형 | 1 |   | 5  | 6(23)   |
| 12. 매입형 |   |   |    | -       |
| 13. 의무형 |   |   | 2  | 2(8)    |
| 계       | 5 | 5 | 16 | 26(100) |

E 자료에서는 (나)의 전화 대화 상황에서 ‘Call me when you get there.’, (다)의 바베큐 파티 상황에서 ‘Come on.’의 사용 등 직접 요청형의 사용이 35%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다)의 파티 상황에서 ‘Let’s dance.’와 같이 ‘Let’s...’의 사용이 빈번하여 비정형이 23%의 빈도를 보였다. 그 뒤로 직접 질문형과 소망형(15%), 의무형(8%), 기술형(4%) 순으로 빈도수가 측정되었다.

E 자료에 나타난 사회적 관계에 따른 공손 전략 빈도는 다음과 같다.

<표 18> E 자료 사회적 관계에 따른 공손 전략 빈도

|           | 화자=청자 |   |   |    | 화자>청자<br>화자<청자 |   |   | 계 |
|-----------|-------|---|---|----|----------------|---|---|---|
|           | 아     | 모 | 가 | 친  | 아              | 모 | 가 |   |
| 1. 직접적 표현 |       |   |   | 14 |                |   |   |   |
| 2. 적극적 공손 |       |   |   | 7  |                |   |   |   |
| 3. 소극적 공손 |       |   |   | 1  |                |   |   |   |
| 4. 암시적 표현 |       |   |   | 1  |                |   |   |   |
| 5. 기타 질문  |       |   |   | 3  |                |   |   |   |
| 계         |       |   |   | 26 |                |   |   |   |

(아: 아는 사이, 모: 모르는 사이, 가: 가족 관계, 친: 친구 관계)

E 자료에서는 친구관계의 사회적 상황아래서 요청 표현이 발생하였으며, 사회적 거리가 가깝고 위치가 같은 친구 관계이기 때문에 화자의 욕구를 완화행위 없이 전달하는 직접적 표현이 (14/26)회, 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 유지를 위한 적극적 공손의 FTA가 (7/26)회 발생하였다. 이는 E자료에 제시된 상황이 상황적 부담감이 없는 친구 관계였기 때문에 직접적 표현의 발생 빈도가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 3.3.6. F 자료 분석

‘The O.C’는 총 10개의 발화맥락 상황에서 58개의 요청 화행을 발  
 채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F자료에 나타난 발화 맥락과 사  
 회적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9> F 자료 발화 맥락과 사회적 관계

| 발화 맥락 상황       | 사회적 위치             | 사회적 거리          |
|----------------|--------------------|-----------------|
| 가. 법정 대리인과의 만남 | 화자 > 청자<br>화자 < 청자 | 모르는 사이          |
| 나. 가출할 것을 요청   | 화자 > 청자<br>화자 < 청자 | 가족 관계/<br>아는 사이 |
|                | 화자 = 청자            | 가족 관계           |
| 다. 전화 대화       | 화자 = 청자            | 친구 관계           |
| 라. 처음 만난 사이    | 화자 = 청자            | 모르는 사이          |
| 마. 위탁 가정 첫 방문  | 화자 > 청자<br>화자 < 청자 | 모르는 사이          |
| 바. 낯선 사람의 방문   | 화자 > 청자<br>화자 < 청자 | 모르는 사이          |
| 사. 넥타이 매는 법 지도 | 화자 > 청자<br>화자 < 청자 | 아는 사이           |
| 아. 파티          | 화자 > 청자<br>화자 < 청자 | 모르는 사이          |
|                | 화자 = 청자            | 아는 사이/          |

|          |       |                  |
|----------|-------|------------------|
|          |       | 모르는 사이           |
| 자. 몸싸움   | 화자=청자 | 아는 사이/<br>모르는 사이 |
| 차. 의견 충돌 | 화자=청자 | 가족 관계            |

F 자료에서는 화자와 청자의 위치가 같은 경우, 모르는 사이 3회, 아는 사이 2회, 가족 관계 2, 친구 관계 1회 발생하였으며, 화자와 청자의 사회적 위치가 다른 경우, 모르는 사이 4회, 아는 사이 2회, 가족 관계가 1회 발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발화 맥락 별 요청 표현의 빈도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0> F 자료 발화맥락 별 요청표현 빈도(%)

|         | 가 | 나 | 다 | 라 | 마 | 바 | 사 | 아 | 자 | 차 | 빈도(%)  |
|---------|---|---|---|---|---|---|---|---|---|---|--------|
| 1. 소망   |   | 2 |   |   |   |   |   |   |   | 1 | 3(5)   |
| 2. 가능   |   |   |   |   |   |   |   |   |   |   | -      |
| 3. 기술   | 1 |   |   |   |   | 1 |   |   |   | 1 | 3(5)   |
| 4. 허가   | 1 |   | 1 | 1 |   | 1 |   | 1 |   |   | 5(9)   |
| 5. 직접질문 |   |   |   | 5 | 3 | 1 | 1 | 4 |   | 1 | 15(26) |
| 6. 명칭   | 1 |   |   |   |   |   |   | 2 |   |   | 3(5)   |
| 7. 소유   |   |   |   |   |   |   |   |   |   |   | -      |
| 8. 직접요청 | 2 | 3 |   |   | 1 |   | 5 | 2 | 5 |   | 18(31) |
| 9. 부담   |   |   |   |   |   |   |   |   |   |   | -      |
| 10. 언질  |   |   |   |   |   |   |   |   |   |   | -      |
| 11. 비정형 |   | 1 |   |   | 2 |   | 1 | 1 |   |   | 5(9)   |

|         |   |   |   |   |   |   |   |    |   |   |         |
|---------|---|---|---|---|---|---|---|----|---|---|---------|
| 12. 매입형 | 1 |   |   | 1 | 1 | 1 |   |    |   |   | 4(7)    |
| 13. 의무형 | 1 |   |   |   |   |   |   | 1  |   |   | 2(3)    |
| 계       | 7 | 6 | 1 | 7 | 7 | 4 | 7 | 11 | 5 | 3 | 58(100) |

총 66개의 대화문 중 (사)와 같이 양아버지가 넥타기 메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상황에서 ‘Look at that.’, ‘Turn around.’와 같은 직접 요청형의 사용이 31%, (라)와 같이 처음 만나는 모르는 사이의 경우 ‘Do you want to play...?’와 같은 직접 질문형의 사용이 26%, (마)와 같이 처음 위탁 가정을 방문하면서 법정대리인의 ‘Let’s go inside.’와 같은 비정형의 사용과 (가)의 상황에서 ‘Let me tell you something’과 같은 허가형의 사용이 9%의 빈도를 보였다. (바)와 같이 낯선 사람이 방문하는 상황에서 집을 지키고 있던 딸에게 ‘When you see your father, please remind him again how much we’d like to talk.’와 같은 매입형의 사용이 7%, 그 뒤로 소망형, 기술형과 명칭형이 5%, 의무형이 3% 순으로 나타났다.

F 자료에 나타난 사회적 관계에 따른 공손 전략 빈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1> F 자료 사회적 관계에 따른 공손 전략 빈도

|           | 화자=청자 |    |   |   | 화자>청자<br>화자<청자 |    |   | 계  |
|-----------|-------|----|---|---|----------------|----|---|----|
|           | 아     | 모  | 가 | 친 | 아              | 모  | 가 |    |
| 1. 직접적 표현 | 5     | 3  | 2 |   | 6              | 6  | 2 | 24 |
| 2. 적극적 공손 | 1     | 3  |   |   | 2              | 4  |   | 10 |
| 3. 소극적 공손 |       | 2  |   | 1 |                | 7  | 1 | 11 |
| 4. 암시적 표현 |       |    | 1 |   |                | 1  |   | 2  |
| 5. 기타 질문  | 2     | 3  | 1 |   | 1              | 4  |   | 11 |
| 계         | 8     | 11 | 4 | 1 | 9              | 22 | 3 | 58 |

(아: 아는 사이, 모: 모르는 사이, 가: 가족 관계, 친: 친구 관계)

전체적으로 직접적 표현의 발생 빈도가 높았으며, 화자와 청자의 사회적 위치가 같을 때, 소극적 공손법의 사용은 (3/11)의 비율을 보인 반면, 청자와 화자의 사회적 지위가 다를 때에는 (8/11)의 빈도를 보였다. 또한 화자와 청자의 사회적 위치가 다른 경우, 아는 사이와 모르는 사이에서 직접 요청형의 사용이 두드러진 이유는 법정 대리인과 비행 청소년의 만남, 임시 위탁 가정에서 양부모와의 만남에서 상대적으로 사회적 위치가 높은 어른들의 발화 사용에서 명령형의 직접 요청형의 사용이 빈번하였기 때문이다.

### 3.3.7. G 자료 분석

‘One tree hill’에서는 10개의 발화 맥락 안에서 63개의 요청 화행을 발췌하였다. 다음의 자료에 나타난 발화 맥락과 사회적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2> G 자료 발화맥락과 사회적 관계

| 발화 맥락 상황 | 사회적 위치             | 사회적 거리          |
|----------|--------------------|-----------------|
| 가. 농구 시합 | 화자 > 청자<br>화자 < 청자 | 아는 사이           |
| 나. 하교길   | 화자 > 청자<br>화자 < 청자 | 가족 관계/<br>아는 사이 |
| 다. 선수 추천 | 화자 = 청자            | 친구 관계           |
| 라. 선수 설득 | 화자 > 청자<br>화자 < 청자 | 모르는 사이          |
| 마. 친구 설득 | 화자 = 청자            | 친구 관계           |
| 바. 선물 도착 | 화자 > 청자<br>화자 < 청자 | 가족 관계           |
| 사. 체육관   | 화자 > 청자<br>화자 < 청자 | 가족 관계           |
| 아. 공원    | 화자 = 청자            | 아는 사이           |
| 자. 전화 대화 | 화자 = 청자            | 친구 관계           |
| 차. 차 고장  | 화자 = 청자            | 모르는 사이          |

G 자료에서는 화자와 청자의 사회적 위치가 같은 경우, 아는 사이 1회, 모르는 사이 1회, 친구 관계가 3회 발생하였고, 화자와 청자의 사회적 위치가 다른 경우, 아는 사이 2회, 가족 관계 3회, 모르는 사이가 1회 발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발화 맥락 별 요청 표현의 빈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3> G 자료 발화맥락 별 요청표현 빈도(%)

|         | 가  | 나 | 다 | 라 | 마 | 바 | 사 | 아 | 자 | 차 | 빈도(%)   |
|---------|----|---|---|---|---|---|---|---|---|---|---------|
| 1. 소망   |    |   |   |   |   |   | 2 |   |   |   | 2(3)    |
| 2. 가능   |    |   |   |   |   |   |   |   |   |   | -       |
| 3. 기술   |    |   |   | 1 |   |   |   |   | 2 |   | 3(5)    |
| 4. 허가   |    |   |   |   |   |   |   |   |   | 2 | 2(3)    |
| 5. 직접질문 |    |   |   | 2 | 3 |   |   | 1 |   |   | 6(10)   |
| 6. 명칭   |    |   | 2 |   |   |   |   | 3 |   |   | 5(8)    |
| 7. 소유   |    |   |   |   |   |   |   |   |   |   | -       |
| 8. 직접요청 | 18 |   | 4 |   | 2 | 1 | 3 |   | 2 | 1 | 31(49)  |
| 9. 부담   |    |   |   |   |   |   |   |   |   |   | -       |
| 10. 언질  |    | 1 |   |   |   |   |   |   |   |   | 1(2)    |
| 11. 비정형 | 4  |   |   |   | 1 |   |   | 1 |   | 1 | 7(11)   |
| 12. 매입형 |    |   |   |   |   |   |   | 1 |   | 1 | 2(3)    |
| 13. 의무형 |    |   | 1 |   |   | 1 | 1 |   | 1 |   | 4(6)    |
| 계       | 22 | 1 | 7 | 3 | 6 | 2 | 6 | 6 | 5 | 5 | 63(100) |

전체적으로 (가)와 같이 농구 시합을 하는 상황의 특수성으로 인해

‘Hustle!’, ‘Go!’와 같은 직접 요청형의 사용 비율이 49%, ‘Let’s go!’와 같은 비정형이 11%의 비율을 보였다. (마)와 같이 친구를 설득하는 상황에서 ‘Were you gonna tell us, man?’과 같은 직접 질문형이 10%로 다른 유형에 비해 빈번하게 나타났다. 이 밖에 시합 날짜를 정하는 상황에서 ‘Tomorrow night.’과 같은 명칭형이 8%, 이 외에 의무형이 6%, 기술형이 5%, 매입형, 허가형, 소망이 3%, 언질형이 2%로 나타났다.

G 자료에 나타난 사회적 관계에 따른 공손 전략의 빈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4> G 자료 사회적 관계에 따른 공손 전략 빈도

|           | 화자=청자 |   |   |    | 화자>청자<br>화자<청자 |   |   | 계  |
|-----------|-------|---|---|----|----------------|---|---|----|
|           | 아     | 모 | 가 | 친  | 아              | 모 | 가 |    |
| 1. 직접적 표현 | 3     | 1 |   | 4  | 22             |   | 7 | 37 |
| 2. 적극적 공손 | 2     | 1 |   | 2  | 5              |   |   | 10 |
| 3. 소극적 공손 |       | 3 |   | 1  | 5              |   |   | 9  |
| 4. 암시적 표현 |       |   |   | 3  | 1              |   | 1 | 5  |
| 5. 기타 질문  | 1     |   |   |    | 1              |   |   | 2  |
| 계         | 6     | 5 |   | 10 | 34             |   | 8 | 63 |

(아: 아는 사이, 모: 모르는 사이, 가: 가족 관계, 친: 친구 관계)

G 자료는 농구 시합이라는 상황의 특성 상 코치가 선수에게 지시

내리는 상황이 많아 완화행위 없는 직접적 표현의 사용이 현저 (37/63)하게 나타났다. 화자와 청자의 사회적 위치가 같은 때 사회적 거리감이 먼 모르는 사이의 경우 아는 사이보다 소극적 공손 전략을 더 빈번히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3.3.8. H 자료 분석

‘Smallville’에서는 8개의 발화맥락 상황 아래 45개의 요청화행을 발췌하였다. H 자료에서 발췌한 발화맥락과 사회적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5> H 자료 발화맥락과 사회적 관계

| 발화 맥락 상황         | 사회적 위치             | 사회적 거리 |
|------------------|--------------------|--------|
| 가. 꽃가게           | 화자 > 청자<br>화자 < 청자 | 아는 사이  |
| 나. 위급한 상황        | 화자 = 청자            | 모르는 사이 |
| 다. 등교 시간         | 화자 > 청자<br>화자 < 청자 | 가족 관계  |
| 라. 학교 활동 관련 부탁하기 | 화자 = 청자            | 친구 관계  |
| 마. 물에 빠진 사람 구하기  | 화자 = 청자            | 모르는 사이 |
| 바. 진실 고백         | 화자 > 청자<br>화자 < 청자 | 가족 관계  |
| 사. 상담            | 화자 = 청자            | 친구 관계  |
| 아. 격려            | 화자 = 청자            | 친구 관계  |

H 자료에서는 화자와 청자의 사회적 상황이 같은 친구 관계가 3회, 모르는 사이가 2회, 화자와 청자의 사회적 위치 다른 가족 관계가 2회, 아는 사이가 1회 발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살펴 본 발화맥락 별 요청 표현의 빈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6> H 자료 발화맥락 별 요청 표현 빈도(%)

|         | 가 | 나 | 다 | 라  | 마 | 바 | 사 | 아 | 빈도(%)   |
|---------|---|---|---|----|---|---|---|---|---------|
| 1. 소망   |   |   |   | 1  |   | 1 |   |   | 2(4)    |
| 2. 가능   |   |   |   | 1  |   |   | 1 |   | 2(4)    |
| 3. 기술   | 1 |   | 3 | 2  |   |   | 3 |   | 9(20)   |
| 4. 허가   |   |   |   |    |   |   |   |   | -       |
| 5. 직접질문 |   |   |   | 2  |   | 4 | 2 |   | 8(18)   |
| 6. 명칭   | 2 |   |   |    |   |   |   |   | 2(4)    |
| 7. 소유   |   |   |   |    |   |   |   |   | -       |
| 8. 직접요청 |   | 2 | 2 | 3  | 3 |   | 1 | 4 | 15(33)  |
| 9. 부담   |   |   |   |    |   |   |   |   | -       |
| 10. 언질  |   |   |   |    |   |   |   |   | -       |
| 11. 비정형 | 1 |   |   |    |   |   | 1 |   | 2(4)    |
| 12. 매입형 |   |   |   | 1  | 1 |   |   |   | 2(5)    |
| 13. 의무형 |   |   |   | 2  |   |   | 1 |   | 3(7)    |
| 계       | 4 | 2 | 5 | 12 | 4 | 5 | 9 | 4 | 45(100) |

발화 맥락 별 요청 표현의 빈도수를 살펴보면 (라)의 학교 활동상황과 (마)의 물에 빠진 친구를 구하는 상황에서 ‘Listen!’, ‘Wait!’,

‘Don’t die on me!’와 같은 직접 요청형의 사용이 33%의 분포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다)의 아침 등교 전 엄마와 딸의 대화 상황에서 ‘You’re going to late for the bus!’와 같은 기술형의 사용이 20%, (바)와 같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진실을 알려주는 상황에서 아들의 ‘What are you trying to tell me, dad?’와 같은 직접 질문의 사용이 18%, 의무형 7%, 매입형 5%, 소망형, 가능형, 기술형, 명칭형이 4%의 분포를 보였다.

H 자료에 나타난 사회적 관계에 따른 공손 전략 빈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7> H 자료 사회적 관계에 따른 공손 전략 빈도

|           | 화자=청자 |   |   |    | 화자>청자<br>화자<청자 |   |    | 계  |
|-----------|-------|---|---|----|----------------|---|----|----|
|           | 아     | 모 | 가 | 친  | 아              | 모 | 가  |    |
| 1. 직접적 표현 |       | 3 |   | 13 | 2              | 2 | 3  | 23 |
| 2. 적극적 공손 |       |   |   | 3  | 1              |   | 1  | 5  |
| 3. 소극적 공손 |       | 1 |   | 5  |                |   | 1  | 7  |
| 4. 암시적 표현 |       |   |   | 2  | 1              |   | 5  | 8  |
| 5. 기타 질문  |       |   |   | 2  |                |   |    | 2  |
| 계         |       | 4 |   | 25 | 4              | 2 | 10 | 45 |

(아: 아는 사이, 모: 모르는 사이, 가: 가족 관계, 친: 친구 관계)

친구 사이일 때 직접적 표현의 사용이 (13/23) 다른 사회적 관계

보다 빈도 수가 더 높았으며, 친구에게 숙제를 부탁하는 상황, 아들에게 진실을 고백하는 상황으로 인해 ‘Could you do me a favor?’, ‘Can you keep a secret?’과 같은 가능형의 관례적 간접 표현의 소극적 공손 전략의 사용 ‘This is the only way.’와 같은 기술형의 암시적 표현의 사용 빈도(7/25)가 적극적 공손의 빈도(3/25) 보다 높게 나타났다. 위의 표에서 모르는 사이일 경우, 직접적 표현의 사용 빈도가 각각 (3/4)회와 (2/2)로 나타난 이유는 위급한 상황에 처한 화자의 ‘Help’와 같은 완화행위 없는 직접 요청형의 사용 때문이다.

### 3.3.9. 8개 드라마 사회적 관계 발생 빈도

이상과 같이 위의 8가지 드라마 대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관계의 발생 빈도를 종합해 보면 아래 <표 28>과 같다. 사회적 관계 발생 빈도의 분석을 통해 실생활과 유사한 하이틴 드라마 상황에서는 어떠한 사회적 관계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며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어떤 요청 유형이 다른 요청 유형에 비해 빈번하게 사용되었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표 28> 8개 드라마 분석자료 별 사회적 관계 발생 빈도 수

|   | 화자=청자 |   |   |   | 화자>청자<br>화자<청자 |   |   |
|---|-------|---|---|---|----------------|---|---|
|   | 아     | 모 | 가 | 친 | 아              | 모 | 가 |
| A |       |   | 1 | 5 | 1              | 3 | 2 |
| B |       |   |   | 5 | 3              | 1 | 3 |

|   |   |   |   |    |    |    |    |
|---|---|---|---|----|----|----|----|
| C |   | 1 | 1 | 4  |    | 1  | 4  |
| D |   |   |   | 4  | 1  | 4  |    |
| E |   |   |   | 3  |    |    |    |
| F | 2 | 3 | 2 | 1  | 2  | 4  | 1  |
| G | 1 | 1 |   | 3  | 2  | 1  | 3  |
| H |   | 2 |   | 3  | 1  |    | 2  |
| 계 | 3 | 7 | 4 | 28 | 10 | 14 | 15 |

(아: 아는 사이, 모: 모르는 사이, 가: 가족 관계, 친: 친구 관계)

8개의 대본에 나타난 사회적 관계의 빈도수를 살펴보면 총 81회 중 화자와 청자의 사회적 위치가 같은 친구 관계가 28회의 빈도로 가장 많았고, 부모와 자녀와 같은 가족관계가 15회, 화자와 청자의 사회적 위치가 다른 모르는 사이 14회, 화자와 청자의 사회적 위치가 다른 아는 사이 10회, 화자와 청자의 사회적 위치가 같은 모르는 사이 7회, 형제, 자매 등의 가족관계 4회, 아는 사이가 3회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생활과 유사한 상황의 하이틴 드라마 상황에서는 친구 관계의 사회적 관계의 발생 빈도가 다른 사회적 관계 발생 빈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번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청소년들의 생활에서 학교 생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또래 집단 속에서 자아 정체 감을 확립하는 청소년 시기에는 상대적으로 또래 집단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 3.3.10. 8개 드라마의 사회적 관계에 따른 공손 전략

화자와 청자간의 사회적 위치, 사회적 거리의 사회적 관계에 따른 요청 화행의 공손 전략의 빈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아래 <표 29>와 같다. 사회적 관계에 따른 각각의 전략 아래 특정한 요청 표현 유형이 빈번히 사용되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9>

8개 드라마에 나타난 사회적 관계에 따른 공손 전략 빈도(%)

|          | 화자=청자     |           |           |            | 화자>청자<br>화자<청자 |            |            | 계           |
|----------|-----------|-----------|-----------|------------|----------------|------------|------------|-------------|
|          | 아         | 모         | 가         | 친          | 아              | 모          | 가          |             |
| 1. 직 접 적 | 8<br>(73) | 7<br>(39) | 6<br>(60) | 74<br>(52) | 42<br>(67)     | 17<br>(25) | 31<br>(43) | 185<br>(48) |
| 2. 적 극 적 | 3<br>(27) | 4<br>(22) |           | 30<br>(21) | 8<br>(13)      | 10<br>(14) | 12<br>(17) | 67<br>(17)  |
| 3. 소 극 적 |           | 7<br>(39) |           | 24<br>(17) | 11<br>(17)     | 32<br>(47) | 15<br>(21) | 89<br>(23)  |

|                   |             |             |             |              |             |             |             |              |
|-------------------|-------------|-------------|-------------|--------------|-------------|-------------|-------------|--------------|
| 4.<br>암<br>시<br>적 |             |             | 4<br>(40)   | 14<br>(10)   | 2<br>(3)    | 10<br>(14)  | 14<br>(19)  | 44<br>(12)   |
| 계                 | 11<br>(100) | 18<br>(100) | 10<br>(100) | 142<br>(100) | 63<br>(100) | 69<br>(100) | 72<br>(100) | 385<br>(100) |

전체 427개의 대화문 중 기타 질문형 42개를 제외한 385개의 사회적 관계에 따른 각 공손 전략의 발생 빈도의 결과는 위의 표와 같다.

전체 385개의 요청 화행 화행 중 명령형의 직접 요청형, 'I need...'와 같은 소망형, 'You should..'와 같은 의무형의 직접적 표현의 사용은 48%, 'Can I...?', 'Let me...'와 같은 허가형, 'I wonder if...'와 같은 매입형, 'I just want...'와 같은 부담 완화 표식을 동반한 소망형, 'Would you...'와 같은 언질형, 명칭형의 소극적 공손 전략의 사용은 23%, 'Let's...'와 같은 비정형, 'Do you want to...?'와 같은 직접 질문형, 'Why don't you...?'와 같은 비정형의 적극적 공손 전략의 사용은 17%를 차지했다. 마지막으로 기술형의 암시적 전략의 사용은 12%를 차지했다.

청자와 화자의 사회적 위치가 같은 경우, <표 29>에 나타난 총 81회의 사회적 관계 발생 빈도 중 3회를 차지했던 아는 사이에서 직접적 표현은 73% 사용되었고 적극적 공손은 27% 사용되었다. 7회의 발생빈도를 보인 모르는 사이의 경우, 직접적 표현과 소극적 공손이 39%, 적극적 공손법이 22% 사용되었다. 여기서 직접적 표현의 발생

빈도가 적극적 공손법의 사용보다 빈도수가 높았던 이유는 친구 사이의 싸움을 말리는 상황, 물에 빠진 친구를 구하는 상황 등과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 직접 요청형의 사용 때문이다. 이어서 4회의 발생빈도를 보인 가족 관계의 경우 직접적 표현이 60%, 암시적 표현이 40% 사용되었으며 마지막으로 28회로 가장 높은 사회적 빈도를 보였던 친구 사이에서 직접적 표현이 52%, 적극적 공손법이 21%, 소극적 공손법이 17%, 암시적 표현이 10%의 비율을 차지했다.

청자와 화자의 사회적 위치가 다른 경우, 81회의 사회적 관계 발생 빈도 중 10회의 발생빈도를 보인 아는 사이의 경우, 직접적 표현의 사용이 67%, 소극적 공손의 사용이 17%, 적극적 공손의 사용이 13%, 암시적 공손법의 사용이 3%의 비율을 차지했다. 14회 사회적 관계 발생 빈도를 보인 모르는 사이의 경우, 소극적 공손법의 사용이 47%, 직접적 표현의 사용이 25%, 암시적 표현법과 적극적 공손법의 사용이 14%의 비율을 차지했다. 여기서 화자와 청자가 서로 모르는 사이에서 직접적 표현 유형의 발생이 높았던 이유는 법정 대리인, 면접관, 학교 행정직원의 발화와 같이 사회적 위치가 높은 사람의 직접 요청형의 사용 빈도가 높았기 때문이다. 가족 관계에서는 직접적 표현이 43%, 소극적 공손법이 21%, 암시적 표현의 사용이 19%, 적극적 공손법의 사용이 17%를 나타냈다.

여기서 부담감이 없는 가족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소극적 공손 전략의 사용이 빈번했던 이유는 같은 가족 관계임에도 부모와 자녀간의 사회적 위치와 거리의 차이보다는 외할머니와 손녀 사이의 사회적 위치와 거리감의 차이가 더 멀기 때문에 손녀의 관례적 간접 요청 표현의 사용이 빈번하였기 때문이다.

위의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사회적 관계에 따른 요청 유형의 공손 전략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각 사회적 관계에 따라 화자가 어떠한 요청 유형을 사용하여 일정한 공손 전략을 달성하고 있는지를 예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6) 화자=청자, 아는 사이

이복 형제인 Lucas와 Nathan은 서로 같이 살지도 않는 사이이다. Lucas의 농구팀 합류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Nathan이 Lucas에게 제안을 하는 상황이다.

Lucas: What do you want?

Nathan: What do I want? What do you want, man?

I mean, other than my girlfriend and my spot in the lineup, huh? None of us want you on the team, man. I don't want you. The guys don't want you. My girlfriend sure as hell doesn't want you. --but here's the deal. --You and me, one on one. You can name the time and place. If you win, I'll quit the team. If I win, you crawl back in your little hole and you remember your place in all this. Time and place, baby. Time and place.

(One tree hill: Ep1: 20)

Lucas는 직접 질문형으로 Nathan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다. Nathan은 'You can..'이란 표현의 가능형의 질문 유형을

사용하여 직접적으로 Lucas가 장소와 시간을 정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또한 ‘I’ll do X for you, if you do Y for me.’와 같은 상호성을 가정한 구문을 사용한 기술형의 적극적 공손 전략을 이용하여 청자에게 Lucas에게 제안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다시 명칭형의 사용을 통해 장소와 시간을 분명히 언급함으로써 직접적으로 화자의 욕구를 전달하고 있다.

(7) 화자=청자, 모르는 사이

길에서 우연히 비슷한 또래의 여자 아이 차가 고장 난 것을 보고 자신의 차에 동승할 것을 요청하는 상황이다.

Lucas: Come on. Let me give you a ride. I’ll let you insult me.

Peyton: First of all, you don’t know me. Second of all, you don’t know me.

(One Tree Hill: 2003: 12)

화자와 청자의 사회적 위치가 같고, 거리가 먼 모르는 사이일 경우에도 ‘Come on’과 같은 직접 요청형의 직접적 표현의 사용과 ‘let me’와 같은 허가형의 관용적 간접 표현을 통한 소극적 공손 전략의 사용, 마지막으로 ‘I’ll let you insult me.’와 같은 기술형의 농담조의 사용을 통한 적극적 공손 전략의 사용이 나타났다.

(8) 화자=청자, 가족 관계-자매

집에서 자매 간에 옷과 관련된 말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Joey는 언니 Bessie의 옷을 몰래 입은 후 제자리에 놓지 않고 침대 밑에 두어 언니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상황

Bessie: If you want to wear my things, fine. They're useless to me, but that means you put them back where you found them. Got it?

Joey: Got it.

Bessie: I am way too pregnant to be digging underneath your bed.

Joey: So stay out of my room, got it?

(Dawson's creek: 1998: 6-7)

Bessie는 첫 번째 발화에서 직접 요청형을 사용해 Joey에게 부탁하고 있다. 명령문 앞에 'you'를 붙이는 형태는 유평적인 명령형의 형태로 영어에서는 굉장히 무례한 표현이다. 완화행위 없이 대담하게 청자의 체면을 위협하고 있다. Joey는 잔소리 하는 언니를 향해 명령형의 직접 요청형을 사용하여 완화 행위 없이 대담하게 표현하고 있다. 또한 언니 Bessie는 자신의 현재 상태를 기술하는 기술형의 요청 유형을 통한 암시적 전략으로 청자에게 앞으로 옷을 제대로 갖다 놓도록 요청하고 있다.

(9) 화자=청자, 친구 관계-연인

Catlin이 약혼자에게 자신의 동창회에 참석해줄 것을 요청하는 전화대화이다.

Catlin: Keith, I know you're really overworked right now, but this weekend's really really important to me. Come on, it's just one weekend. I want to show you off. Show us off, please? Yeah, that's perfect. Great 5:00. Thanks babe. I love you.

(The Degrassi: 2001: 5)

Catlin은 'I know...'라는 표현을 통해 자신의 약혼자가 바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지식을 전제로 하는 적극적 공손 전략을 사용하여 이번 주말이 정말 중요하니 꼭 와야 한다는 요청을 기술형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문장은 발화 수반력을 갖는 간접 화행이다. 이에 화자는 연이어 'come on'과 같은 직접 요청형, 'I want to..'와 같은 소망형의 완화행위 없는 직접적인 공손 전략과 보통 직접 요청형의 문장과 관례적으로 함께 쓰여 문장 전체에 공손성을 더해주는 'please'의 사용을 통한 소극적 전략으로 청자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10) 화자>청자, 아는 사이-스승과 제자

수업이 모두 끝난 후 학생들과 담소를 나눈 후에 헤어지는 상황에서 복도에서 뛰는 아이들을 교사가 지도하고 있다.

Archie: (Takes the hat off J.T) And I can see Fedora's are making a comeback. (Puts the hat on his head) Great! Thanks a lot guys. Uh, listen, go and enjoy your last days of freedom.

J.T: Spike? (Emma hits him) Ow! (They start to run)

Archie: Hey guys, no running! No running! No running! Okay, just keep running. Don't listen to me. All right.

(The Degrassi: 2001: 4)

교사와 학생간의 사회적 지위에서 교사가 상위에 있기 때문에 위의 예문을 살펴보면 모두 명령형의 직접 요청형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아이들이 뛰는 상황에서 'No running'과 같이 동사의 명사화를 통한 명칭형의 소극적 공손 전략을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요청하고 있다.

(11) 화자>청자, 화자<청자-모르는 사이-손님과 점원

비디오 가게에 낯선 손님이 등장하고 있다. Dawson은 비디오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며 Tamara는 낯선 손님이다. Pacey는 Dawson의 친구로 옆에서 일을 도와주고 있다.

Dawson: Good afternoon, can we help you?

Tamara: Yes, you can. This is my first time here and I'd like to rent a video.

Pacey: Excellent. You just fill this out and shoot us over a credit card.

Pacey: Thanks.

(Dawson's creek: 1998: 8)

점원이 손님에게 하는 관례적인 간접 표현 'Can we...?'라는 허가형의 요청표현을 통해 청자의 체면을 손상시키지 않으려는 소극적 공손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손님은 자기가 이곳에 처음이라는 힌트를 기술형의 요청 표현을 통해 점원에게 의사를 전달함으로써 암시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평서문으로 보이는 이 문장은 청자로 하여금 도와주는 행동을 실행하게 하는 발화 수반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상호간의 안면이 없는 모르는 사이이므로 'I'd like to..'라는 격식을 갖춘 소망형의 관용적 간접 표현을 통해 소극적 공손 전략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점원은 직접 요청형을 완화시키는 'just'의 사용을 통한 소극적 공손 전략을 통해 손님에게 요청하고 있다.

(12) 화자 > 청자, 가족 관계 - 아버지와 아들

여자 친구와 다툰 Nate를 아버지가 화해하도록 조언해주고 있다.

Howie: You seem to be upbeat this morning. Did you have good time with Blair last night?

Nate: Actually, we got into a pretty big fight.

Howie: You want my advice? Apologize, even if it was her fault. Flowers. Maybe some jewelry. if she really upset. Always works for your mother.

(Gossip girl: 2007: 22)

아버지의 첫 번째 발화를 살펴보면 ‘You seem to be..’라고 말하며 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이런 표현은 본격적인 요청에 앞서 청자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는 적극적 공손 전략 중의 하나이다. 아들에게 ‘You want my advice?’와 같은 질문형을 평서형의 형태로 발화하며 자신의 조언을 아들이 원하는지를 묻고 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Apologize’, 와 같은 직접 요청표현과 더불어 ‘flowers’, ‘jewelry’ 등의 정확한 대상물 명칭을 통해 완화 행위 없이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3.4. 8개 하이틴 드라마에 나타난 요청 표현 연구 결과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대학생들의 발화를 분석 대상으로 한 기존 교과서 분석의 연구 틀로서의 Gibbs(1981, 1986)이론의 한계와 교과서 분석의 연구의 보다 합리적인 분석 틀을 제공하고자 실생활과 유사한 8가지 청소년 드라마 대본의 71개의 발화 맥락을 기준으로 427개의 요청 화행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0> Gibbs 요청 표현 유형에 따른 8개 드라마 분석 결과

|         | A  | B | C  | D | E | F  | G | H | 빈도(%)  |
|---------|----|---|----|---|---|----|---|---|--------|
| 1. 소망형  | 3  | 4 | 5  | 8 | 4 | 3  | 2 | 2 | 31(7)  |
| 2. 가능형  | 1  | 3 | -  | 5 | - | -  | - | 2 | 11(3)  |
| 3. 기술형  | 16 | 7 | 9  | 6 | 1 | 3  | 3 | 6 | 54(13) |
| 4. 허가형  | 2  | 6 | 2  | 6 | - | 5  | 2 | - | 23(5)  |
| 5. 직접질문 | 12 | 6 | 10 | 9 | 4 | 15 | 6 | 8 | 70(16) |

|         |    |    |    |    |    |    |    |    |          |
|---------|----|----|----|----|----|----|----|----|----------|
| 6. 명칭형  | 1  | 4  | 2  | -  | -  | 3  | 5  | 2  | 17(4)    |
| 7. 소유형  | -  | -  | -  | -  | -  | -  | -  | -  | -        |
| 8. 직접요청 | 30 | 19 | 11 | 17 | 9  | 18 | 31 | 15 | 150(35)  |
| 9. 부담형  | -  | -  | -  | -  | -  | -  | -  | -  | -        |
| 10. 언질형 | 1  | -  | -  | 1  | -  | -  | 1  | -  | 3(1)     |
| 11. 비정형 | 2  | 1  | 6  | 4  | 6  | 5  | 7  | 2  | 33(8)    |
| 12. 매입형 | 4  | -  | 2  | 1  | -  | 4  | 2  | 2  | 15(3)    |
| 13. 의무형 | 4  | 2  | 2  | 2  | 1  | 2  | 4  | 3  | 20(5)    |
| 계       | 76 | 52 | 49 | 58 | 26 | 58 | 63 | 45 | 427(100) |

8개의 대본 분석 결과, 직접 요청형의 사용이 3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으며, 직접 질문형이 16%, 기술형이 13%, 비정형이 8%, 소망형이 7%, 허가형과 의무형이 5%, 명칭형이 4%, 매입형과 가능형이 3%, 언질형이 1%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Do you have...?’와 같은 소유형과 ‘Would you mind...?’와 같은 부담형의 요청 표현 유형은 나타나지 않았다.

8개의 대본 분석을 바탕으로 분석 자료에 나타난 각 요청 표현 유형의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3) 소망형의 예

가. *I'd like to rent a video* (Dawson's creek: 1998: 8)

나. *What I really want you to do is to understand that you're*

working.

(The hills: 2006: 12)

8개 대본의 분석 결과, 소망형에는 이외에도 ‘I want...’, ‘I need...’와 같은 표현이 사용되었다.

(14) 가능형의 예

가. *Can you* write?

(The hills: 2006: 3)

나. Could you check over my English paper?

(Smallville: 2001: 9)

8개 대본에 나타난 가능형을 살펴보면 ‘Could you...’와 같은 격식체의 가능형 보다는 ‘Can you...’와 같은 비 격식체의 가능형의 사용이 빈번하였다. 또한 ‘You could...’와 같은 평서형의 가능형도 사용되었다.

(15) 기술형의 예

가. Your breakfast is ready.

(Dawson’s creek: 1998: 11)

나. Your room is a disaster.

(Degrassi: 2001: 1)

기술형은 위와 같이 단문형식의 청자에게 발화 수반력을 가진 간접 화행의 형태로 표현되었다.

(16) 허가형의 예

가. *Can I borrow you?* (Gossip girl: 2007: 3)

나. *Let me determine that.* (Dawson's creek: 1998: 19)

위와 같이 허가형의 경우 위의 'Can I...?' 'Let me...' 형태 외에도 청자와 화자를 포함하는 형태의 'Can we...?'와 같은 표현의 사용도 나타났다.

(17) 직접 질문형의 예

가. *What time is your Vogue thing today?* (The hills: 2006: 2)

나. *What does it say?* (Smallville: 2001: 15)

직접 질문형의 경우 대부분 의문사를 포함한 형태의 요청 유형과 평서문 형식의 간접 질문 형태의 사용이 빈번하였다.

(18) 명칭형의 예

가. *Tulips.* (Smallville: 2001: 1)

나. *Some cooperation.* (Dawson's creek: 1998: 4)

명칭형은 (18-가)와 같이 화자가 원하는 대상물을 지칭하는 형태의 명칭형과 (18-나)와 같이 동사를 명사화 시킨 요청 유형의 사용이 나타났다.

(19) 직접 요청형의 예

가. Have a blog. (Gossip girl: 2007: 12)

나. You stop talk that! (Dawson's creek: 1998: 19)

직접 요청형은 대개 청자 'You'가 생략된 형태로 나타났다. (19-나)와 같은 경우는 유표적인 형태로 청자의 체면을 굉장히 위협하는 무례한 표현이다.

(20) 언질형의 예

가. *Would you* be willing to work in retail sales?  
(The hills: 2006: 7)

나. *Would you* like to join us? (One tree hill: 2003:4)

'*Would you...?*'와 같은 언질형의 형태는 격식을 차린 관용적 간접 표현으로 (20-가)와 같이 면접을 보는 상황이나 (20-나)와 같이 최대한 예의를 차려서 청자의 위협을 최소화 하려는 상황에서 사용되었으며 일상적 요청 유형으로서의 빈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21) 비정형의 예

가. Why don't you just go back to Chino? (The O.C: 2003: 20)

나. Let's dance. (Laguna beach: 2004: 15)

비정형의 경우 (21-가)보다는 (21-나)와 같이 청자와 화자를 포함하는 형태의 'Let's...'의 사용이 빈번하였으며, 이밖에 관례적 표현으로 'Here you go.', 'There you go,'의 사용, 'How about...?', 'What about...?', 'Why don't I...?'의 사용이 나타났다.

(22) 매입형의 예

가. *I was wondering if you could do me a humongous favor.*

(Smallville: 2001: 9)

나. *Is there anything else I can help you?*

(Dawson's creek: 1998: 9)

매입형의 경우 위와 같이 'I was wondering if you could...', 'Is there anything else I can...?'과 같은 비교적 관례화된 매입형의 유형이 나타났으며 이외에 'Do you think I could help...?', 'It would be nice if you do...', 와 같은 청자와 화자의 비 인칭화, 'If you need/want something, call me...'와 같은 조건 절과 요청형의 사용이 주로 나타났다.

(23) 의무형의 예

가. *We should do it again.*

(Smallville: 2001: 18)

나. *Three counts you gotta wait before you come up.*

(Dawson's creek: 1998: 4)

의무형의 경우 위의 예문과 같이 ‘We should...’, ‘You gotta...’외에 ‘You should...’, ‘You (just) have to...’, ‘You are supposed to...’와 같은 표현의 사용이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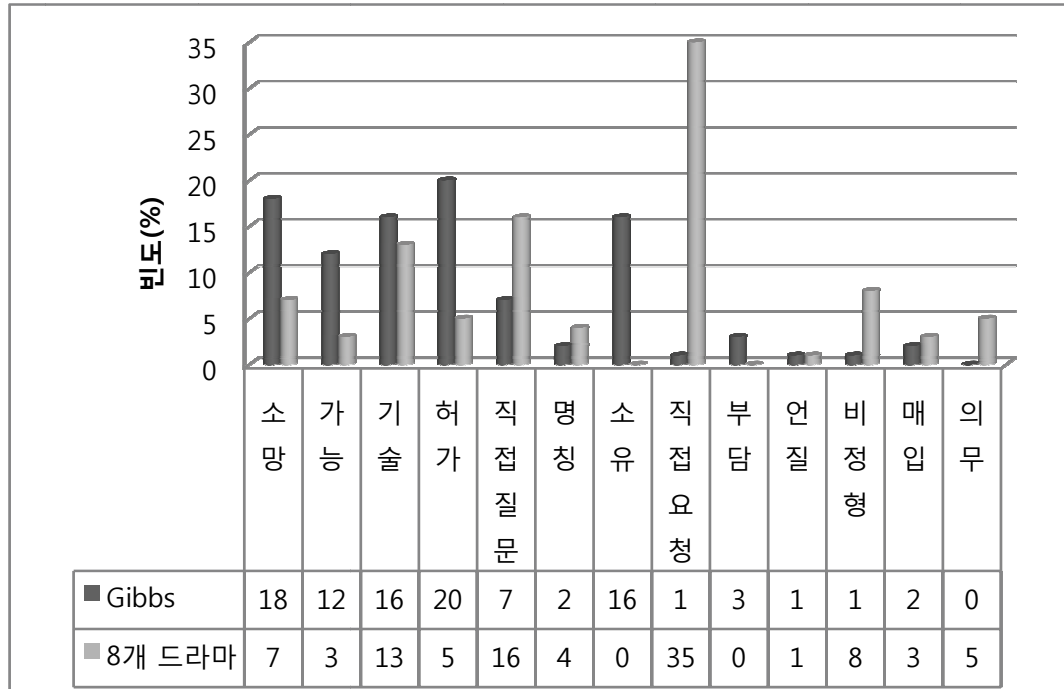
### 3.5. Gibbs(1986)와 하이틴 요청 화행 연구결과 비교

기존 중·고등학교 요청 화행 빈도 분석의 틀로 사용되었던 Gibbs(1981, 1986)의 연구 결과는 청소년들과는 연령대가 다른 대학생들의 발화를 분석 대상으로 한 연구 자료이므로 비교 대상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8개 드라마의 요청 화행 유형 결과의 빈도수를 바탕으로 새로운 분석의 틀을 제시함에 있어 기존의 연구에서 비교 분석의 틀이 되었던 Gibbs(1986)의 연구자료와 비교하고자 한다.

Gibbs(1981)의 연구자료는 사회적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화자와 청자가 모르는 사이에서의 발화 상황 설정으로 인해 그 연구 결과를 사회적 관계가 비교적 다양하게 나타나는 교과서 분석의 비교대상으로 삼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와는 다르게 모르는 사이, 친구 사이 등의 다양한 사회 관계의 설정과 화자가 청자에게 요청 시 부담감이 따르는 상황을 설정한 Gibbs(1986)의 연구 결과를 본 연구와 비교하여 대학생들의 발화와 청소년들의 요청 발화를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의 [그림 2]는 8개의 하이틴 드라마 대본의 분석 결과를 대학생들의 발화를 기준으로 한 Gibbs(1986)의 연구와 발화 유형의 빈도수를 비교한 결과이다.

[그림 2] Gibbs(1986)연구와 8개 드라마 요청 유형 비교(%)



두 연구 결과를 비교해 보면 Gibbs의 이론의 경우, 소망형, 가능형, 허가형, 소유형의 사용이 8개 드라마 연구보다 그 사용 빈도가 더 빈번하였으나 직접 질문형, 직접 요청형, 비정형, 의무형의 경우 8개 드라마 분석결과에서 그 사용빈도가 더 높았다. 기술형, 명칭형, 부담형, 매입형의 경우 그 차이가 5% 정도로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Gibbs의 연구에서는 ‘May I...?’, ‘Can I...?’와 같은 허가형의 사용이 가장 빈번하였으나 8개 드라마 연구 결과에서는 명령형 형태의 직접 요청형의 사용이 가장 빈번하였다.

### 3.6. 고등학교 교과서(2007)와 하이틴 드라마 연구 결과 비교

본 연구에서 도출한 8개 하이틴 요청 화행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동일 연령대의 고등학교 교과서 연구와 비교하여 선행 연구 연구들이 Gibbs(1981,1986)의 연구 결과와 비교하였던 오류를 재해석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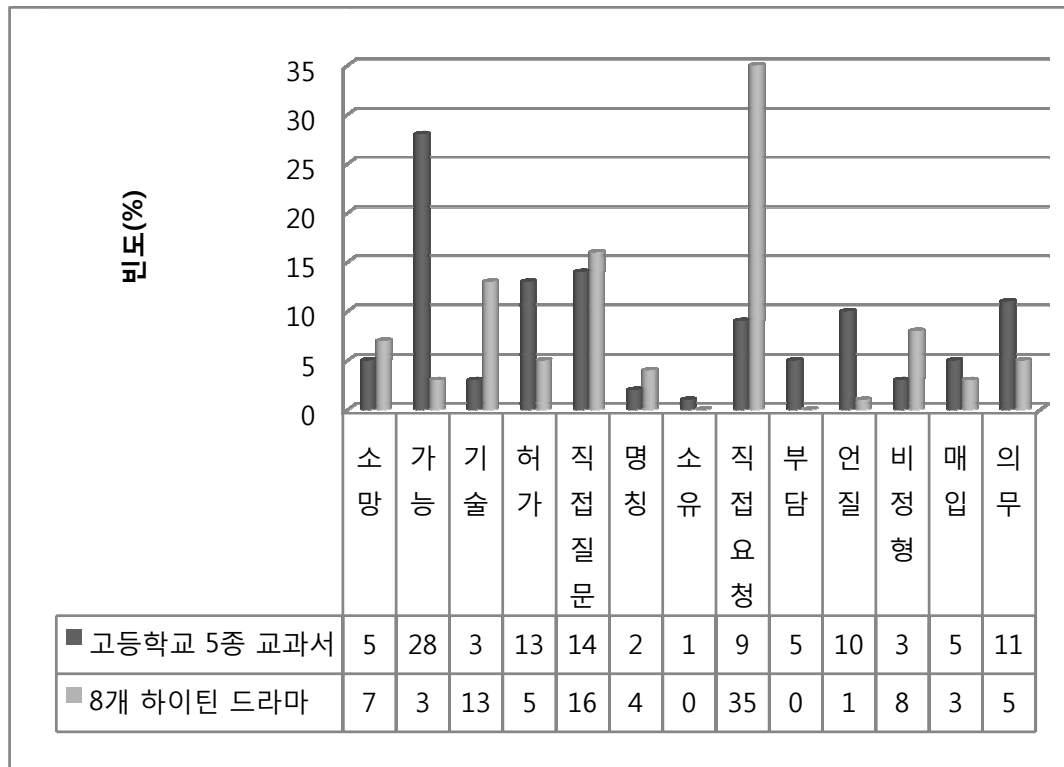
요청 표현의 어법상의 차이에 있어서는 교과서와 8개 드라마 모두 ‘I’d like to...’와 같은 소망형, ‘Can I...?’와 같은 허가형, ‘Can you...?’와 같은 가능형, ‘Would you...?’와 같은 언질형, ‘Would you mind...?’와 같은 부담형, ‘Let’s...’와 같은 비정형, ‘Should we...?’과 같은 의무형, 의문사를 포함한 직접 질문형, 명령형의 직접 요청형, 단문 형식의 평서형인 기술형, 단어만 언급하는 명칭형, 그리고 ‘Is there anything I can help you...?’와 같이 어느 정도 형태가 관례적으로 정해진 복문 형식의 매입형과 같은 13개의 요청 유형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요청 유형의 어법은 하이틴 드라마 요청 화행과 교과서 분석 연구에서 각각의 유형 아래 비교적 관례적으로 정해진 유형 어법에 따라 요청 표현이 구현되고 있으며 단지 차이가 나는 것은 실생활에서 특정 요청 표현 유형이 다른 요청 유형보다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8개의 하이틴 드라마에 나타난 분석 결과를 기존 교과서 요청 표현의 연구 결과와 비교하여 선행 연구와는 다른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비교 대상이 되는 분석 자료는 금성, 두산, 교학사, 능률,

지학사의 5종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요청표현을 분석한 김수민 (2007)의 연구결과이며 하이틴 요청 화행 분석 결과와 비교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3] 고등학교 5종 교과서와 8개 드라마 요청 유형 비교



위의 [그림 3]과 같이 고등학교 5종 교과서와 8개 하이틴 연구 결과를 비교한 결과 고등학교 5종 교과서에서는 8개 드라마 연구 결과에 비해 가능형, 허가형, 언질형, 의무형의 사용이 빈번하였고, 8개 드라마에서는 5종 교과서에 비해 기술형, 직접 요청형의 사용이 빈번하였다. 이밖에 소망형, 명칭형, 소유형, 부담형, 비정형, 매입형의 경우, 그 비율의 차이가 5% 정도로 두 교과서 모두 비슷한 빈도로 나

타났다.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하이틴 요청 화행과는 달리 ‘Can you...?’, ‘Could you...?’ 등의 가능형의 사용이 빈번했던 반면 하이틴 드라마에서는 ‘Could you...?’와 같은 청자 중심 관점의 격식을 차린 가능형의 사용 보다는 ‘Can you...?’와 같은 비 격식체의 표현, ‘Can we...?’와 같은 청자와 화자를 모두 포함하는 가능형의 사용이 나타났다.

기술형의 경우, 하이틴 요청 화행 분석 결과에서 발화 수반력을 가지는 간접화행의 사용이 더 빈번히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간접 화행의 사용은 청자의 체면을 최대한 위협하지 않는 공손 행위이며 원어민과 같은 의사소통 능력 발달을 위해 꼭 필요한 공손 전략이다.

허가형의 경우,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May I...?’, ‘Can I...?’ 등의 사용이 빈번히 나타난 반면 8개 드라마 요청 화행 연구결과에서는 ‘Can I...?’, ‘Let me...’의 사용이 더 빈번하였다.

직접 요청형의 경우, 우리 나라에서는 흔히 명령형이라 공손 규칙을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인지되어 요청 유형으로 자주 사용하지 않지만 우리나라 보다는 상대적으로 인간관계의 위계적 특성이 약한 영어 문화권에서는 명령형의 직접 요청형이 빈번히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담형, 언질형, 의무형의 경우, 모두 ‘Would you mind...?’, ‘Would you...?’, ‘You should...’와 같은 청자 중심 관점의 요청 화행이다. 하지만 8개 드라마 연구 분석 결과 이러한 직접적인 청자 중심 관점의 요청 화행 보다는 대부분 소망형, 허가형의 화자 중심, 직접 요청형, 명칭형과 같은 청자의 생략, ‘Let’s...’와 같이 화자와 청자를

포함하는 비정형의 사용 또는 비 인칭 주어 'it'을 사용한 매입형의 사용으로 청자와 화자의 직접적 관점 생략의 요청 유형이 청자 지향적 관점 보다 하이틴 요청 화행에서 빈번히 사용되었다.

## IV. 결론 및 제언

기존의 중·고등학교 영어 교과서 대화문에 나타난 요청 유형과 빈도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Gibbs(1981, 1986)의 연구를 기준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Gibbs의 연구는 우리 중·고등학생들과는 연령이 다른 미국 대학생들의 발화를 분석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그의 연구 결과를 중·고등학교 요청 화행 유형 분석 연구 결과에 적용하기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 우리 중·고등학교 영어 교과서 분석을 위한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고자 본 연구는 8개의 미국과 캐나다 하이틴 드라마에 나오는 427개의 요청 화행 유형과 그 빈도를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발화 맥락 별 8개 대본의 Gibbs의 13가지 요청 유형에 따른 빈도를 조사한 결과, 직접 요청 유형의 사용(35%)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으며, 그 뒤로 직접 질문형(16%), 기술형(13%), 비정형(8%), 소망형(7%), 허가형과 의무형(5%), 명칭형(4%), 매입형과 가능형(3%), 언질형(1%)의 순서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소유형과 부담형은 나타나지 않았다.

사회적 관계에 따른 공손 전략의 사용에서도 직접 요청형, 비 격식체의 소망형, 명칭형, 의무형이 사용되는 직접적 표현의 사용이 48%, 격식체의 소망형, 허가형, 동사의 명사화 전환의 명칭형, 매입형과 격식체의 가능형, 언질형이 사용되는 소극적 공손 전략의 사용이 23%, 청자의 공감대를 부각시키는 직접 질문형의 사용, 비정형, 상호성을 가정한 기술형의 적극적 공손 전략의 사용이 17%, 청자에게 힌트를 제공하는 기술형의 암시적 표현의 사용이 12%의 비율을 보였다.

이는 특정 요청형이 다른 요청형에 비해 보다 빈번히 나타나며, 화자의 공손 전략 사용시 각각의 전략 아래 특정 요청 유형이 더 빈번히 사용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둘째, 8개 대본의 분석 결과를 Gibbs(1986)의 요청 유형 연구 결과와 비교한 결과, Gibbs의 연구의 경우, 소망형(18%), 가능형(12%), 허가형(20%), 소유형(16%)의 사용이 8개 드라마 연구보다 그 사용빈도가 더 빈번하였으나 직접 질문형(16%), 직접 요청형(35%), 비정형(8%), 의무형(5%)의 경우 8개 드라마 분석결과에서 그 사용빈도가 더 높았다. 기술형, 명칭형, 부담형, 매입형의 경우 그 차이가 5% 안팎으로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요청 화행 연구의 자료 분석의 틀로서 연구한 8개 하이틴 드라마의 연구와 기존 고등학교 요청 표현을 분석한 김수민(2007)의 연구를 비교하여 연구 결과를 재 해석한 결과, 고등학교 5종 교과서에서는 8개 드라마 연구 결과에 비해 가능형(34%), 허가형(13%), 언질형(10%), 의무형(11%)의 사용이 빈번하였고, 8개 드라마에서는 5종 교과서에 비해 기술형(13%), 직접 요청형(35%)의 사용이 빈번하였다. 이밖에 소망형, 명칭형, 소유형, 부담형, 비정형, 매입형의 경우, 그 비율의 차이가 5% 이내로 두 교과서 모두 비슷한 빈도로 나타나고 있다.

8개 드라마의 분석 결과에서 직접 요청형의 빈번한 사용은 명령형과 같은 직접 요청형의 사용을 꺼리는 우리나라 문화와는 다르게 사회적 관계의 위계 관계가 강하지 않은 문화적 특성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제언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8개의 하이틴 드라마에 나타난 발화 맥락 별 요청 화행 사용 빈도 결과를 바탕으로 그 동안 중·고등학교 연구분석의 틀로서 한계점이 있었던 대학생들의 발화를 대상으로 한 Gibbs의 연구와는 다른 요청 유형 빈도의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8개 드라마와 기존 고등학교 교과서 요청 유형 비교 연구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실생활과 유사한 상황에서 직접 요청형과 비정형의 요청 표현 유형의 발생 빈도로 보아 앞으로 교과서 제작 시 공식성의 규칙을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문화적 반영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은 더 비 격식적인 요청 화행을 사용하고 있는 원어민의 문화적 환경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How about...?’, ‘What about...?’, ‘Why don’t I...?’, ‘Why don’t you...?’, ‘Here you go.’, ‘What do you say?’ 와 같은 Gibbs의 12가지 유형에 속하지 않아 비정형으로 분류되는 요청 유형에 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요청 유형 교수 시 요청 표현 유형의 형태에 대한 언어적 지식의 교수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위치, 거리, 부담감과 같은 사회적 관계가 명확히 제시된 대화문 상황을 바탕으로 상황에 적절한 요청 화행 유형을 학습자들에게 교수할 것을 제안한다.

이와 같이 언어 학습자가 발화 상황적 문맥에 맞는 적절한 화용적 지식을 습득한다면 궁극적으로 외국어 학습의 목표인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고승현. (2002). 공손 표현에 관한 연구: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 대화문의 요청 화행 분석.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고인수. (1995). 영어와 한국어의 요청화행 비교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미연. (2004). 중학교 영어교과서의 대화문 분석: 요청 표현을 중심으로. 성신여자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수민. (2007).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 대화문에 나타난 요청 표현 분석.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란. (2003). 중학교 3학년 영어교과서 대화문에 나타난 요청표현.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희정. (2007). 대학 영어교재 및 수업에서의 요청표현분석.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지영. (2003). 영어교육의 관점에서 본 공손 표현 연구: 고등학교 1학년 영어교과서의 요청 화행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배정순. (2006).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의 화용론적 분석: 요청 화행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정화. (2007). 중학교 3학년 영어 교과서 대화문 분석을 통한 의사소통 기능 개선 연구: 요청과 거절을 중심으로. 한국 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정성. (2008).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 대화문 분석: 요청 화행의 전략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이선. (2002). 중학교 2학년 영어교과서 대화문 분석: 공손 표현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Bach, K., & Harnish, R. (1982). *Linguistic communication and speech act*. Cambridge, Mass: MIT Press.
- Blum-Kulka, S., House, J., & Kasper, G. (1989). *The CCSARP coding manual, Cross cultural pragmatics: Request and apologies*. *Applied Linguistics*, 5(3), 273-294.
- Brown, H. D. (1987).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New Jersey.
- Brown, P., & Levinson, S.D. (1987). *Politeness: Some universals in language usa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llis, R. (1994). *The study of second language acquisi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Gibbs, R. W. Jr. (1981). Your wish is my command: *Convention and context in interpreting indirect requests*, *Journals of verbal learning and verbal behavior*, 20, 431-444.
- (1986). *What makes some indirect speech acts conversational?*, *Journals of memory and language*, 25, 181-196.

# ABSTRACT

*The Study on Teenage Requests  
Through the Analysis of Dramas*

*Chung, Yoo-seon*

*Department of English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Directed by Prof. Chung, So-woo*

This study is designed to propose a new frame for the patterns and frequency of request expressions, presupposing that Gibbs' (1981) previous study based on college students' speech has some limitations when applied to Korean middle and high school textbooks.

Regarding this limitation, I would like to study the differences in request speech between American teenagers on dramas and the college students in Gibbs' research. Furthermore, I would like to reinterpret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on the frequency and patterns of requests presented in Korean middle and high school textbooks.

For this analysis, 427 request expressions were taken from eight different teenage dramas from the U.S and Canada, and

were analyzed according to relative power, social distance and impositions within 71 different context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result of frequency in requests patterns shows that 'direct request'(35%) was the most frequent, and was followed by 'direct question'(16%), 'state of the world'(13%), 'unique'(8%), 'want'(7%), 'permission'(5%), 'obligation'(5%), 'name only'(4%), 'embedded'(3%), 'ability'(3%), and 'commitment'(1%) expressions.

Second, the result of the comparison between request patterns in teenage speech and Gibbs' research is as follows. In Gibbs' study, the use of 'want', 'ability', 'permission' and 'possession' patterns was more frequent than was shown in teenage speech. On the other hand, in 8 teenage drams the use of 'direct request', 'direct question', 'unique', and 'obligation' patterns was more common than was shown in Gibbs' research.

Finally, a comparison and a reinterpretation between the frequency of request patterns in 5 high school textbooks (2007) and 8 teenage dramas showed that the use of 'ability', 'permission', 'commitment', and 'obligation' was more common in the textbooks. However, the use of 'state of the world' and 'direct request' patterns was more common in teenage dramas.

With this result, a few required suggestions are as follows.

First, I would like to propose a new frame for the frequency of request expressions through the analysis of teenage speech.

Second, from the frequency of 'direct request' and 'unique' patterns shown in teenage requests, it is necessary to reflect the native cultural background which uses more informal expressions which we conceive as less polite.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unique' patterns when producing textbooks.

Third, teachers should teach appropriate request expressions not only with linguistic knowledge such as request patterns, but also with a situational context where social relationships like social positions, distance, and impositions are precisely presented.

Ultimately, the understanding of pragmatic knowledge will lead language learners to improve their communicative competence.